〔論 文〕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沈 盈 伸*

차 례

Ⅰ. 서 론
Ⅱ. 四天王 신앙과 圖像
1. 사천왕 신앙과 경전
2. 사천왕 도상의 특징
Ⅲ.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사천왕상
1. 7세기 후반의 사천왕상
1) 碑巖寺 佛碑의 천왕상
2) 四天王寺址 사천왕상
3) 感恩寺址 사천왕상
2. 8세기 石窟庵의 사천왕상
Ⅳ. 결 론

Ⅰ. 서 론

통일신라시대는 불보살상의 자비로운 미소와 정적인 자세를 통해 불교세계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했던 시대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세계를 수호하고 불법을 받드는 天部세계의 尊像중에는 사천왕상이 있다. 사천왕상은 갑옷으로 무장하였을뿐 아니라 험상궂은 얼굴에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불교조각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護法神衆의 像이다. 이러한 武將形 사천왕상의 도상적 특징은 갑옷과 자세, 손에 쥐고 있는 持物과 악귀형태의 대좌 등에서 나타난다. 통일신라시대 무장형 사천왕상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7세기후반의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녹유사천왕상과 감은사지 동·서탑 출토의 사리함에 붙어있는 압출사천왕상이 있고 8세기의 대표적인 조각인 석굴암의 벽부조천왕상을 들 수 있다. 이 상들은 문헌기록을 통해 조성연대를 알 수 있을뿐 아니라 통일신라기 사천왕상 연구의 기준작으로 꼽힐만한 예술성을 보유한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사천왕상들의 형식은 7세기 중반경 중국 唐에서 정립된 도상을 받아들여서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통일신라 불교조상 가운데 무장형 도상의 규범이 되어 사천왕상이나 12지신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사천왕상이 제작되던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엽에 걸치는 시기는 불교미술에서 소위 국제양식이라고 하는 공통된 표현이 유행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되었던 사천왕상은 통일신라의 사천왕상과 갑옷형태, 지물의 종류와 자세 그리고 악귀 표현 등에서 매우 공통된 형식을 보여줄뿐만 아니라 표현에서도 유사한 양식체계를 따른다. 따라서 신라의 예들과 중국이나 일본 사천왕상의 예들을 비교하여 보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던 사천왕상 도상의 특징과 그 전개과정을 도출해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삼국 사천왕상의 공통된 도상과 표현형식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통일신라 사천왕상이 보여주는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여 통일신라적인 양식 및 표현의 특징을 갑옷과 지물의 형식 그리고 자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四天王 신앙과 圖像

1. 사천왕 신앙과 경전

四天王은 불국토를 수호하는 호법신으로 그 신앙의 원류는 인도고대 민간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守門神이나 방위신에 대한 신앙이 민간에 널리 퍼져있었는데 사천왕은 이러한 수호신 개념이 불교에 흡수되면서 불법의 진리를 지키는 호법신으로 발전된 것이다.

불교적 護國 사상이 대승경전에 이르러 종교화되면서 가장 널리 받들어진 호국경전 가운데 하나가 『金光明經』이었다.[1] 이 『金光明經』이 특히 호국경전으로 신앙되었던 이유중에는 사천왕사상이 설해져 있기 때문인데 이 경에서는 『金光明經』을 지니고 다니며 읽거나 講經을 하거나 널리 유포하는 나라는 사천왕과 그 권속들이 보호해 준다고 강조한다.[2] 따라서 외적의 침략이나 기근, 질병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사천왕을 신앙하고 이 경을 널리 받드는 것이 필요하였다.

사천왕에 대하여 언급한 불경은 약 30여종이 넘는데 사천왕은 이들 각 경전마다 많은 설법

---

1) 『金光明經』은 산스크릿트의 완전한 원본을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경전가운데 하나인데 현재 完本으로 남아있는 漢譯本에는 北凉의 曇無讖(414~426)이 번역한 4권과 隋代 寶貴(587년)가 曇無讖, 眞諦, 闍那掘多 등의 번역을 섞어서 엮은 『合部金光明經』 8권과 唐의 義淨(625~713)이 703년에 번역한 『金光明最勝王經』 10권의 세 가지가 있다(李箕永, 『佛典解說』, 韓國佛教研究院, 1991(1978초판), p.181).

2) 『金光明經』 권2 「四天王品」 6 (新脩藏經 16 pp.349c-344c)

장면에 등장하여 다양한 역할을 거치면서 불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수미산 수호신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鎭護國家神으로 정착되어간다. 진호국가신으로의 변화는 사천왕이 正法을 護持하며 諸經을 傳持하는 국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역할이 설해지면서 사람들에게 호국경전을 받들도록 권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

우리나라에서는 사천왕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金光明經』 또한 언제 전해졌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신앙은 불교수용과 함께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면 5세기에 가장 먼저 번역된 『金光明經』 4권본이 상당히 일찍부터 전래되었거나 늦어도 6세기말의 번역본은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 역시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三國遺事』에는 『金光明經』과 관련되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法興王과 異次頓의 대화중에 보이는 '피를 뿌려 목숨을 끊어서 일곱 마리 짐승을 스스로 구제한다'는 말은 『金光明經』 卷 4 捨身品(大正藏 16, 354-355)에 나오는 布施王子(摩訶薩埵)가 아사 직전의 일곱 마리 새끼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피를 흘려 捨身하였다는 故事를 가리킨다.[4] 이 이야기를 전하는 글이 元和 年間(806-821)에 南澗寺 사문 一念이 撰한 '髑香墳禮佛結社文'이므로, 그런 말을 法興王이 직접 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하여도 『金光明經』이 일찍부터 신라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5] 또한 삼국시대 백제에는 天王寺가 있었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절이 비록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에 이미 사천왕이 신앙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6]

작품으로는 황룡사지 9층목탑지 심초석에서 발견된 사리기 외함에 선각된 신장상이 삼국시대 사천왕상의 유풍을 전해주는 유일한 자료이다(도 1-a,b,c,d). 이 사리기는 목탑지 심초석 사리孔의 벽에 붙어 돌려졌던 청동함으로 제작연대는 목탑건립 당초인 645년작으로 추정된다.[7] 방형 사리기의 네 면에 높이 약 23cm 크기의 천왕상이 각 2구씩 새겨져 있는데 상태가

---

3)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경전으로는 『金光明經』외에도 支謙((223~253) 譯의 『佛說太子瑞應本起經』 2권을 비롯하여 梁僧伽婆羅 역(512년)의 『阿育王經』 10권, 劉宋智嚴·寶雲共譯(427년경) 『佛說四天王經』 1권, 不空 역의 『佛母大孔雀明王經』 3권 등을 들 수 있다(臺信祐爾, 『敦煌の四天王圖像』, 『東邦學報』(1994), p.19 참조).

4) '酒血摧命 自怜七獸'(『三國遺事』 卷3 法興 3, 原宗興法 猒髑滅身條)

5) 金煐泰, 「三國時代의 神呪信仰」, 『韓國密教思想研究』, 東大出版部(1986), pp.7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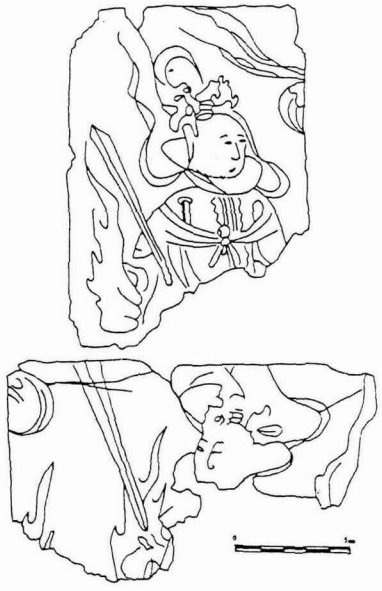
6) '風雨暴至震天王道壞二寺塔又震白石寺講堂'(『三國史記』 卷28 百濟本記 6 義慈王20年 5月條) 인도의 경우 高僧傳 卷3 法顯傳에 '於摩訶提國波蓮弗邑阿育塔南天王寺得摩阿僧祇祈律'(大正藏 第50卷)이라 하였고 중국의 경우는 『開院釋教錄』 第7卷에 의하면 闍那掘多가 沙門 耶舌掘多와 함께 北周 大冢宰 宇文護를 위해 四天王寺 및 歸聖寺에서 金光明經 3部를 譯했던 것을 볼 수 있어 北周 武帝(561~572)때 長安에는 四天王寺라는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出口常順, 「御手印緣起-四天王信仰の展開」, 『佛教藝術』 56(1965), p.12).

7) 文化財研究所,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Ⅰ, 文化財管理局(1984), p.353.

1-a

1-b

1-c



1-d

圖 1-a,b,c,d. 황룡사 사리기 신장상(文化財硏究所, 『皇龍寺』 삽도 22~25), 645년

좋지않아 형태를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리부분은 부식되어 대좌도 확인할 수 없으나 손에는 칼과 활, 창 등의 지물을 들고 약간의 측면향으로 직립해 있는데 오른손에 검을 들고 왼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상이 보인다. 머리칼은 정수리에서 묶어올렸으며 갑옷의 형태는 단조로운 편으로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의 갑옷과 비교하면 둥글게 목을 감싼 높은 衿甲이라든가[8] 금갑밑으로 내려오는 2조의 수직선, 그리고 요갑밑으로 길게 늘어지는 긴 치마와 신체 정면에서 두 단으로 늘어지며 팔에 걸쳐지는 천의표현 등이 매우 특징적이다.[9] 또한 분노상을 나타내지 않은 얼굴이나 커다란 움직임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율동적으로 보이는 자세와 유연하게 바람에 날리는 천의 등 보살형에 가까운 부드러운 조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사천왕상 가운데 이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 예로는 돈황 제285굴 벽화의 西魏시대 大同4·5년(538·539)의 사천왕상이나(도 5) 수대의 돈황막고굴 423굴 西頂 說法圖 중의 사천왕상을 들 수 있다.[10] 이 상들 역시 앞 여밈을 한 요갑밑에 긴 치마를 두르고 양손에 지물을 든 채 율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황룡사 사리기상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여준다.

황룡사 사리기상의 갑옷표현이나 지물을 들고 있는 자세와 비교할 수 있는 사천왕상의 형식은 일본에서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日本 奈良의 法隆寺 玉虫廚子 扉繪 天王像이나(도 2) 法隆寺 金堂 四天王像에서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었다(도 3). 이 상들 역시 왼손에 창, 오른손에 검을 든 형식을 포함하는데 특히 玉虫廚子 扉繪상과는 높고 둥근 금갑이나 札片을 표현한 挂甲, 흉갑의 수직선같은 갑옷의 표현뿐만 아니라 약간 측면향을 나타내는 율동적인 자세, 몸앞에 두 단으로 늘어지는 천의라든가 머리를 묶은 띠와 천의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등 세부표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한 표현은 황룡사 사리기 천왕상이 청동함에 새겨져 회화적인 표현에 가깝고 따라서 玉虫廚子 비회와는 표현이 좀더 자유롭다고 하는 기법적인 유사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같은 동아시아 삼국의 예를 통해 보면 위협적인 자세의 무장형 사천왕 도상이 정립되기 전에는 인도의 약사형 사천왕상과 그 계통이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보살형에 가까운 부드러운

---

8) 목을 보호하는 衿甲이 목을 감싸면서 어깨에서 턱밑까지 높게 올라가다 턱밑에서 나팔꽃처럼 넓게 퍼지면서 턱을 받쳐주는 형태는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의 衿甲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으로 삼국시대에 나타나는 古式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5~6세기 갑옷의 衿甲형태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伽倻文化展 KAYA-ANCIENT KINGDOM OF KOREA』, 東京國立博物館·京都國立博物館·福岡縣立美術館·福岡縣·韓國國立中央博物館·朝日新聞社(1992), p.71 도 165, p.107 도335 참조).

9) 발굴조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고대 갑옷은 주로 5~6세기의 예들로 그 개략적인 양상은 申敬澈, 「五~六世紀代の韓半島南部出土の甲冑の諸問題」, 『東アシアの古代文化』 83號(1995년, 春), pp.26~28 참고. 또한 출토된 일부 갑옷에 대한 자세한 현상은 啓明大學校博物館, 『高靈池山洞古墳群』啓明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 1 輯(1981), pp.33~38을 참고할만 하다. 부산 福泉洞이나 陜川 玉田古墳 혹은 高靈 池山洞古墳 등에서 출토된 갑옷이 원색도판으로 실려있는 도록으로는 위의 책 도 331~347을 참고할 만하다.

10)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II, 平凡社(1981), 도 34.

圖 2. 法隆寺 玉蟲廚子 扉繪 天王像, 7세기

圖 3. 法隆寺 金堂 四天王像, 7세기 전반

인상의 사천왕상이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황룡사 사리기 천왕상이 양손 모두에 지물을 드는 것은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식으로 양손에 지물을 드는 것은 654년에 한역된『陀羅尼集經』에 나타난 經說인 점에서 흥미로운데 이러한 특징은 보살형에 가까운 조형성과 함께 삼국시대 사천왕상 표현의 특징적인 형식으로 생각된다.

무장형으로 표현하지 않은 천왕상의 형식은 뒤에서 살펴볼 忠淸南道 燕岐郡 碑巖寺에서 발견된 석조불비상에서도 보이고 있다(도 9-a,b,c). 이 佛碑의 천왕상은 하반신에 裳만을 두른 채 갑옷은 착용하지 않고 탑을 받들고 있다. 비상의 제작연대는 비록 통일신라시대인 689년이지만 삼국시대의 사천왕 도상을 알려주는 작품으로 생각되며 이런 작품들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무인형 사천왕상과는 다른 삼국시대 사천왕상의 형식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실제 작품은 전하지 않지만 황룡사지 금당지에는 삼국시대 사천왕상의 臺座로 짐작되는 臺座石이 전하고 있다. 황룡사는『三國遺事』와『三國史記』,『高麗史』등의 고문헌에 관계기록이 자세히 나타나 있고 발굴조사를 통하여 寺址의 변천과정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히 높은 寺格을 지닌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황룡사 금당에는 인도의 阿育王이 이루지못한 장육의 석가삼존상이 인연있는 국토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에서 배에 실어 보내온 黃鐵 五萬七千斤, 黃金 三萬分을 가지고 장육상을 조성하였다고 한다.[11] 황

룡사지 금당지 북측 후면에는 이 장육상의 대좌로 짐작되는 삼존불 대좌석이 있고 그 양옆에는 동서로 나란히 각기 5개씩의 대좌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동서쪽 남북방향에는 두 개의 대좌석이, 그리고 그 앞쪽 중앙부에 또 하나씩의 대좌석이 배열되어 있다.[12] 삼존불대좌석 양쪽의 대좌석 10개는 석가모니 십대제자상의 대좌로 짐작되며 중앙부의 두 개는 梵天과 帝釋天의 대좌석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방향으로 두 개씩 도합 네 개의 대좌석에는 바로 四天王像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황룡사는 眞興王 14년(553)에 공사가 시작되어 同王 30년(569) 공사가 마쳐져 이때 이루어진 가람이 同王 35년(574)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9층탑이 완성된 善德女王 14년(645) 사이 가람에 변형이 있었고 이 가람은 景德王 13년(754)까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13] 금당은 丈六像이 완성된 574년에서 약 10년후인 584년에 이루어졌고[14] 사천왕상은 6세기후반이나 늦어도 7세기중엽에는 제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삼국시대에는 사천왕 신앙에 대한 정보를 줄만한 기록과 작품이 모두 드문 편이지만 통일신라시대에는 몇몇 기록이나 많은 작품을 통해 사천왕 신앙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三國遺事』에 의하면 문무왕 19년(679)에 四天王寺를 창건하고 唐兵을 물리쳤다 하였으니 이는 『金光明經』 「四天王品」에서 설하는 사천왕에 의한 호국사상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入唐使 金思讓이 704년 3월 귀국하여 唐代 번역본들 가운데 최신본인 『金光明最勝王經』을 성덕왕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경은 唐의 義淨이 700년부터 703년까지 福先寺에서 번역한 것으로 신라 유학승 勝莊이 그 번역에 두 번 참가하였다.[15] 이렇게 국가의식이 명확히 천명되어 있는 불경의 역경에 신라승이 참가했다든가 역출하자마자 바로 신라로 가져와 왕에게 바쳤던 사실을 통해 그 당시 불교계나 왕실에서 『金光明經』이나 사천왕 신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경덕왕 12년(753) 사문 대현으로 하여금 『金光明經』을 강하여 비를 내리도록 하였다는 기록 역시 『金光明經』을 手持·讀誦·講經·流布하는 나라는 사천왕과 그 권속들이 각종의 재난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보호해 준다고 하는 經說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외에도 신라시대 이 경에 대하여 註疏를 붙인 예를 보면 元曉의 疏 8권, 憬興의 略意 1권과 述贊 7권, 金光明最勝王經略贊 5권, 最勝王經疏 10권(5권), 勝莊의 金光明最勝王經疏 8권, 道(遁)倫의 略記 1권, 太賢의 述記 4권,

11) 『三國遺事』 皇龍寺 丈六條 및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條 참조.

12) 文化財硏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文化財管理局(1984), p.52, 삽도 5.

13) 金東賢, 「慶州 皇龍寺址에 대한 遺構內容과 文獻資料와의 比較檢討」, 『佛敎美術』10(1991), p.131.

14) '眞平王六年甲辰金堂造成'(『三國遺事』 皇龍寺丈六條)

15) 『宋高僧傳』 권1, 「義淨本傳」 ; 『大正藏』 50책, p.710 ; 黃有福·陳景富 지음, 權五哲 옮김, 『韓·中 佛敎文化交流史』, 까치, p.89에서 재인용.

料間 1권을 냈을 정도이다.[16] 그러나 무엇보다 현존하는 사천왕 彫像을 통해서 이 시기 사천왕 신앙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현존하는 통일신라초기 사천왕상의 형식이 7세기후반에 이미 완비된 것을 보면 사천왕상의 제작전통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불교미술 교류의 역사를 통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사천왕 신앙은 통일신라시대 훨씬이전부터 이어오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사천왕 도상의 특징

사천왕 신앙은 『金光明經』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사천왕의 역할과 명칭 그리고 住處에 대하여는 『金光明經』의 「四天王品」이 가장 상세하다. 사천왕의 명칭은 방위에 따라서 정해지며 그 주처는 불교 우주관의 欲界, 色界, 無色界의 三界중 欲界, 六欲天의 제일천에 속하고 위치는 수미산 중턱에 있다. 8부중을 권속으로 거느리고 항상 閻浮提의 중생을 관찰하고 있다. 사천왕의 신앙이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사천왕상의 연구는 역시 현존 유물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데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의 형상은 갑옷을 입고 탑이나 금강저같은 불교상징물 또는 칼,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분노의 표정을 띤 채 위협적인 자세로 악귀위에 서있는 武將形이다.[17]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이 들고 있는 지물이나 갑옷 그리고 자세 등에 직접 관련되는 경전은 밀교경궤류로 보이는데 지물과 자세에 대한 언급은 경전마다 차이가 있다. 경전의 언급에 기초하여 사천왕의 지물과 자세 등을 <표 1>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쪽을 지키는 持國天의 범어명은 dhṛtarāṣṭra(提頭賴吒)로 治國·安民·持國 등의 뜻이 있다. 국토를 잘 다스리고 중생을 안온케하는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乾達婆와 毘舍闍를 거느리고 손에 드는 지물로는 7세기에 한역된 『陀羅尼集經』이나 『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에서는 빛을 내는 寶와 劍, 8세기에 한역된 『一字佛頂輪王經』, 『不空絹索神變眞言經』에서는 창을 들고 있다.

남쪽을 수호하는 增長天의 범어명은 virūḍhaka(毘樓勒叉)이며 이는 增長·增廣을 의미한다. 귀신 拘槃茶와 폐려다를 거느리는 천왕이다. 7세기의 한역경에서는 刀나 矟, 棒의 지물을, 8세기 한역경에서는 주로 창을 지물로 들고 있다.

---

16) 李箕永, 앞책, p.182, 金煐泰, 앞책, p.73~74.

17) 그런데 北涼의 曇無讖이 414~426년에 한역한 『金光明經』 권 24에서 묘사하는 사천왕은 영락을 달고 두 손을 합장하고 반가부좌한 보살형으로 묘사되어 인도의 약사형 사천왕상의 형상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臺信祐爾, 위의 논문, p.20).

<표 1> 經典에 나타난 四天王의 方位·持物>

經　軌(譯年)	持　國　天		增　長　天		廣　目　天		多　聞　天	
	좌	우	좌	우	좌	우	좌	우
陀羅尼集經第十一 (653-4)	申臂垂下把刀	屈臂向前仰手掌中著寶寶上出光	申臂把刀	執矟矟根着址	同前唯執矜異	中面把赤索	同前執矟拄地	屈臂肘於佛塔
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下(693)	劍		棒		弓箭(刀劍)		器仗	
不空絹索神變眞言經(707-9)	把槊	揚掌	執槊	揚掌	執槊	揚掌	執槊	獨股金剛杵
一字佛頂輪王經 1(705)	執槊	側揚掌	執槊	側揚掌	執槊	掌金剛杵	執槊	執金剛杵
<普賢延令法> 金剛智口決 (723-36)	五指端微曲佮如持物	執刀橫胸臆前刀下首左如物物勢	二手外縛二大指竝立當心前		二手腕相交右押左持刀索(或不持之)		持寶塔	執三股戟
般若守護十六善神王形體(723-36)	棒鉾	大刀	押腰	跋折羅	以筆作書寫之勢		捧全身舍利寶塔	持金剛棒
法華曼荼羅威儀形色法經(746-74) (輿然圖像集5)	執利鉾	著腰	拳押膝	金剛劍	拔折羅	持羅索	捧寶塔	持寶劍
秘藏記末	持鉾		持利劍		持三股鉾		——	
諸說不同記 7-10現圖	向內持刀	拳叉腰	拳叉腰	拳當媒下持劍	拳叉腰	開堅肘拳向身持三戟	向內腰側持棒	仰掌指頭向左掌持寶塔

猪川和子,「平安時代四天王彫像の形制について」,『Museum』246, p.26
高田修博士 <經軌における四天王の方位·持物·身色」より 表> 轉載

* 身色은 통일신라상과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삭제함.

서방의 천왕인 廣目天은 범어명인 virūpākṣa(毘樓博叉)를 의역하면 毘樓의 醜, 博叉의 目이 합쳐져 추목 혹은 惡眼이 되지만『華嚴經疎』제5에 의하면 毘는 遍과 多로, 樓는 色이라 전한다고 하므로 반드시 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권속으로 諸龍王과 富多那를 거느리고 있다. 광목천의 지물로는 창이나 刀劍외에『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下』에서는 활과 화살을 들고 있으며『輿然圖像集』5권에 인용된「普賢延令法」에 의하면 왼손에 刀나 索을 들고(혹은 들지않고) 오른손으로 누르면서 양손을 교차한 자세를 설하고 있다.

多聞天은 범어 vaiśravana(毘沙門)를 의역하면 多聞·普門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夜叉와 羅刹을 권속으로 거느리는 천왕이다. 지물로는 탑을 들고 있는데 7세기 한역경에서는 '右手奉塔'이 설해지나 8세기 중엽에 한역된 경전들에서는 '左手奉塔'을 설하고 있다. 실제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에 조성된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다문천상을 보면 대부분이 왼손에 탑을 받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천왕상의 도상은 경전상에서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명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우선 천왕이 위치하고 있는 방위에 의해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탑의 부조나 사리함에 있는 경우에 그 위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발견상태에 따라서는 원래의 위치를 모를 경우 방위를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럴 경우의 존명은 상이 쥐고 있는 지물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전에서 언급하는 사천왕의 지물은 다문천상이 奉塔한 형식외에는 경전마다 달리 설해지며 실제 조상에 있어서도 반드시 경전과 부합하지 않아 지물에 의한 존명 결정도 쉬운 것은 아니다.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의 지물은 검과 창 그리고 탑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다문천상이 탑을 들고 있는 외에 다른 방위의 상들은 지물에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전을 통해 보아도 각 방위의 상에 지물과 관련한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물을 통해 각 상의 존명을 확인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다문천상만은 예외없이 탑을 들고 있는 도상이 경전과 실제 작품에서도 고정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다문천상을 기준으로 나머지 방향의 상의 명칭을 알아낼 수 있다.

인도에서는 중인도 바루훗탑의 기원전 2~1세기의 사천왕상이나 산치 제1탑의 사천왕상을 비롯하여 남인도 불전미술 그리고 서북인도의 간다라 불전미술에서도 사천왕상을 볼 수 있다. 인도에서 제작된 초기 사천왕상은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윗옷은 입지않은 채 목과 팔에 장신구만을 하며 하반신에 裳을 두른 약사形으로 표현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사천왕상의 무장형 도상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18] 사천왕을 무장형으로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한역경전으로는 西晉의 竺法護가 308년에 한역한 『佛說普曜經』이 있다. 이 경의 卷 4 出家品 제12에서는 사천왕이 鎧甲을 착용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어 무인형 사천왕에 대해서는 경전상에서도 이른시기부터 묘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19]

武將形 사천왕의 도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계기로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정설이 없다. 다만 사천왕이 불교 본래의 신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의 귀인형 도상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파되면서 점차 무인형으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0] 작품상으로 보면 3-4세기 서역의 라왁사원지나 단단윌릭 등에서

---

18) 이들 초기 사천왕상의 문헌적 근거는 『장부경전』·『본생경』 등의 본생·불전관계 경전을 들 수 있다(宮治昭, 「インドの四天王と毘沙門天」, 『日本の美術 8』, 至文堂(1992) 및 金香淑, 「南インドのいわゆる「占夢」の佛傳場面について-四天王の圖像お中心に-」, 『佛教藝術』 226(1996, 6), pp.85-116 ; 同 「インドの四天王の圖像的特徵」, 『密教圖像』 第15號(1996. 10), pp.1~27.).

19) 臺信祐爾, 위의 논문, p.20

20) 臺信祐爾, 위의 논문, p.16

圖 4. 石造佛碑像, 梁, 普通4년(523), 四川省 成都, 万佛寺址 출토, 河南省 博物館

발견된 소조천왕상이나 중국에서는 남북조시기의 돈황벽화에서 무장형 사천왕상의 도상이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사천왕상을 제작했던 것은 전해지는 기록이나 실제 작품으로 보아도 남북조시대(439~589)부터라고 생각된다. 기록에 의하면 梁武帝의 天監末(518,9년 경)에 始興王이 사천왕상을 조성하여 예배했으며[21] 六朝시대 宋 명제 때의 대가로 인물을 잘 그렸다고 하는 陸探微가 그린 불상중에는 托塔天王像, 北門天王圖, 天王圖가 있었다.[22] 실제 전하는 작품으로는 우선 四川省 成都 万佛寺유지에서 나온 梁 普通4년(523)의 명문을 가진 석조불비에서도 천왕상이 보인다(도 4). 석가를 중심으로 菩薩, 比丘, 天王像 등을 배치한 群像형식으로 사천왕은 웅크린 惡鬼의 등에 놓인 연화를 밟고 서있다. 그 중 1구는 탑을 받든 다문천이며 다른 1구는 비교적 짧은 검으로 보이는 지물을 들고 있다.

敦煌 제285굴 벽면에 그려진 사천왕상은 西魏 大同4년과 5년(538,539)의 제기로 인하여 그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예이다(도 5). 사천왕상은 소조여래좌상 좌우에 2구씩 배치되어 蓮花座위에 서 있는데 네 구 모두 한쪽 손에 창을 들었으며 향우의 안쪽에 위치한 상은 탑을 받들고 있다. 胸甲이나 腰甲, 腰甲밑에 표현된 주름과 무릎밑을 내려오는 裳의 표현 등 비교적 단순한 甲衣 형식을 보이고 있다. 몸에 밀착되게 입혀진 갑옷은 목을 보호하는 衿甲의 표현을 볼 수 없으며 목깃은 V자로 처리되었다. 흉갑이 좌우의 두 판으로 나뉘며 길게 늘어지는 裳위에 요갑을 둘렀는데 요갑은 뒤에서부터 돌려 앞에서 여민 듯이 보이며 요갑밑에는 프릴을 단 것같은 세로의 주름이 표현되었다. 돈황석굴 제 257굴 중심주東向 大龕북측에는 이러한 갑옷형식을 보이는 북위시대의 塑造천왕상이 있다.[23] V자형의 목깃이나 흉갑의 표현, 허리를

21) 天監末始興王冥感於染秦寺造四天王每六齊辰常設淨供仙後赴會四天頂上放五色光仙所執爐自然煙發(大正藏49卷 續高僧傳 25 道仙傳)

22) 梅澤和軒, 『六朝時代の藝術』, アルス, 大正 15年, p.135 및 pp.147~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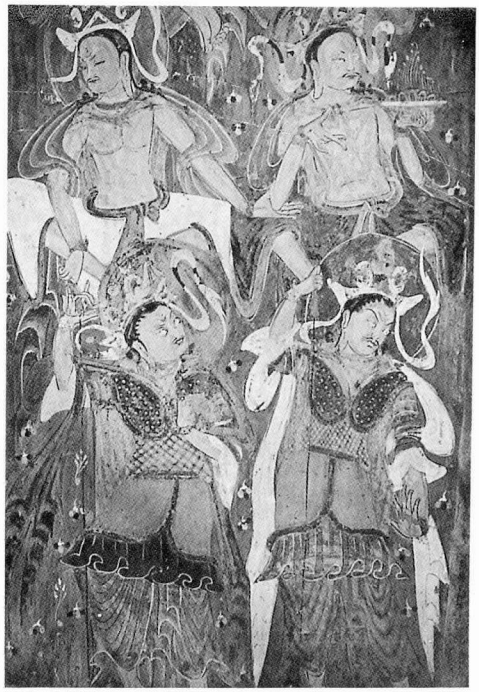


圖 5. 敦煌 제285굴 벽화 四天王畵像, 西魏, 大同 4·5년(538·539)

圖 6. 석탑초층 좌측면 天王像, 北齊,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날씬하게 강조하여 몸에 꼭 맞게 입혀지고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裳자락이나 요갑밑에 표현된 세로의 주름외에도 숄처럼 어깨를 두른 천의가 양 팔에 한 번씩 감겨 흘러내리는 표현까지 매우 유사하여 남북조시대 무장형 사천왕상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北齊시대의 작품이라 추정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의 석탑 초층좌측면에 부조된 사천왕상은 삼지창의 날사이에 손가락을 건 채 왼쪽 무릎을 살짝 굽히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웅크리고 앉은 동물을 밟고 있다(도 6). 北齊시대의 이 상 역시 万佛寺상과 같이 甲衣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반신은 나형으로 목걸이를 하고 하반신에 裳만을 두른 채 서 있는 모습은 바루훗이나 산치 제1탑 등의 탑문이나 난순에서 표현된 인도의 약사형 사천왕상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南北朝 時代의 중국 사천왕상은 장식이 화려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갑옷을 착용하고 창과 보탑 등의 지물을 들고 동물이나 연화 대좌위에 서있다. 그런데 분묘에 부장된 같은 시대의 武士俑은 當代의 중국 갑제인 明光甲을 채용하고 있어 갑옷입은 사천왕상과 무

23)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I, 平凡社(1980), 도판 38, 119 참조.

사용을 비교해 보면 사천왕상의 갑제는 중국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 7). 또한 아예 甲冑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하반신에 裳만을 두른 상들이 있다. 이런 상들은 武將形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인도의 약사형 사천왕의 도상과 연결되는 계통의 상들로 인도의 약사형 사천왕상이 서역을 거쳐 중국에 와서 무장형 도상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중국의 무장형 사천왕상은 현재 전해지는 예들로 보면 위와같이 남북조시대부터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자세와 갑옷 등에서 아직은 보살형에 가까운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隋代 사천왕상의 갑옷과 자세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돈황석굴 제427굴 전실의 소조 사천왕상은 장식이 풍부하고 세부구성이 좀더 복잡해진 갑옷을 착용하고 공격적으로 팔을 들어올린 채 악귀위에 서 있다(도 8). 이러한 형식의 사천왕상을 남북조시대상과 비교하면 무장형에 가까운 조형이다. 결국 중국에서는 사천왕 도상이 서역을 통해 받아들여져 일찍부터 조영되어 오다가 그 신앙이 성해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唐代의 정비된 명광갑을 착용하고 분노상을 띤 채 악귀위에 서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무장형 도상으로 정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은 唐代에 정립된 이러한 도상을 받아들여 나름대로의 양식을 확립해 간 것으로 보인다.

圖 7. 武士俑, 北齊(562년)
(『考古學報』 1979/3, pl.7)

圖 8. 敦煌 제427굴 전실 소조 四天王像,
隋代(581-618년)

Ⅲ.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사천왕상

1. 7세기 후반의 사천왕상

1) 碑巖寺 佛碑의 천왕상

7세기 후반에 제작된 천왕상 가운데 통일신라기에 제작되었으나 삼국시대 백제의 조각전통을 이어준다고 생각되는 예가 있어 주목된다. 忠淸南道 燕岐郡 碑巖寺에서 발견된 石造佛碑像은 배면에 새겨진 「己丑年」銘을 통해 68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왕상은 본존좌우에 있는 보살상옆에 배치되어 있는데 갑옷을 착용하지 않고 하반신에 裳을 두른 채 천의를 길게 늘어뜨리며 한 손에 커다란 보탑을 들고 연화위에 대칭적으로 서있다(도 9-a,b,c). 마치 보살상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인상의 이러한 천왕상의 형식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무장형 사천왕상과는 그 계통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圖 9-a. 碑巖寺 己丑年銘 佛碑像, 統一新羅(689년), 충남 연기군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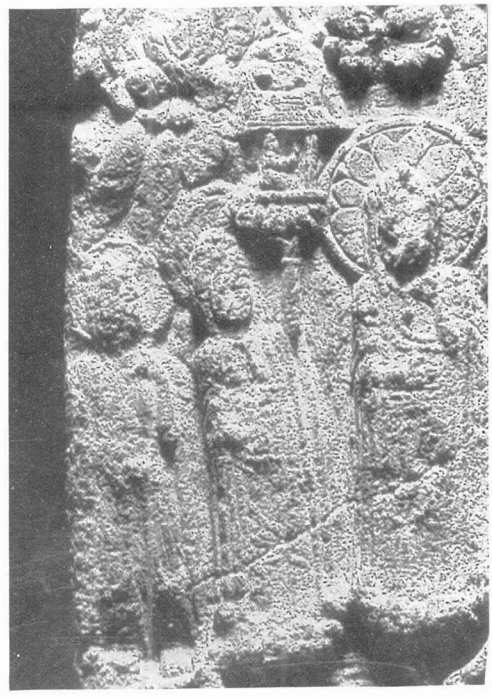


圖 9-b. 碑巖寺 佛碑 天王像(향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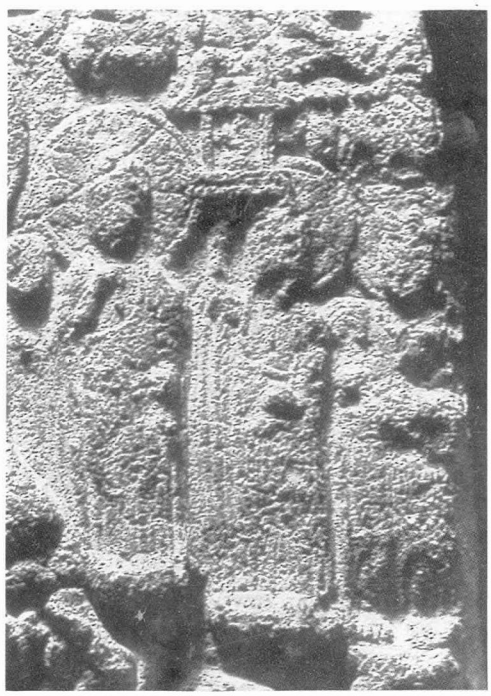


圖 9-c. 碑巖寺 佛碑 天王像(향우)

이러한 형식과 비교할 수 있는 중국의 예로는 四川省 成都 萬佛寺址에서 발견된 남북조시대 梁 普通4년(523)銘의 석조불비에 표현된 천왕상을 들 수 있다. 천왕상은 불보살상군보다 한 단 낮은 가장자리 좌우에서 악귀가 받치고 있는 연화좌에 탑을 들고 서있다(도 4). 이 상들은 중국의 봉탑형 천왕상의 最古 예라 할 수 있는데 비암사상과 비교하여 보면 천의와 裳을 입은 모습으로 연화 위에 서 있는 천왕의 형식뿐만 아니라 깊이감 있고 복잡한 상의 배치와 부드러운 조형성에서도 두 비상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상이 출토된 지역은 삼국시대의 백제 땅이고 당시 백제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생각할 때 이 비상은 그 유민에 의해 계승되고 있던 백제의 조각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4]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비암사불비의 천왕상은 삼국시대 백제계 사천왕상의 형식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갑옷을 입지않고 천의와 裳만으로 몸을 감싼 비암사 불비의 천왕상이나 앞에서 살펴본 황룡사지 9층목탑지 심초석에서 출토된 사리기의 선각상에서 풍기는 부드러운 조형성은 분노한 모습에 위협적인 자세의 통일신라기 사천왕상과는 다르며 보살형에 가까운 삼국시대 사천왕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2) 四天王寺址 사천왕상

7세기 후반에 삼국을 통일하고 불교문화를 이어받은 신라는 고신라 시대 조각 전통을 기반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조각 전통을 계승하고 여기에 국제적인 唐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인 불교조각 문화를 창출하였다. 불교문화 활동의 기본적인 장소는 사찰이며 사찰의 규모나 건립 배경에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나 신앙의 성격이 반영된다. 그 중에도 불교의 힘을

24) 金理那「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敎彫刻 樣式」,『考古美術』154 · 155(1982. 6), pp.61-95; 同『韓國古代佛敎彫刻史硏究』, 一潮閣(1989), p.154(이 비상과 함께 같은 지역 출토의 불비상에 보이는 백제의 조각전통에 대한 해석은 또한 黃壽永,『韓國佛像의 硏究』, 三和出版社(1973), pp. 135-174 참조).

빌어서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찰의 연기를 통해서 통일신라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사천왕사의 건립도 당시 신라가 통일을 염원하고 佛法으로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믿음에서 세워진 호국사찰이라 하겠다.

현재 남아있는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중 가장 이른 예는 679년 창건된 四天王寺터에서 발견된 塑造의 綠釉四天王像이다. 특히 절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사천왕신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에 유학갔던 義相법사(625~702)는 당군의 내습계획을 알고 귀국하여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방비코자 절을 假設하고 5方神像을 봉안하여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으로[25]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창건내력을 갖고 있다.[26] 절의 창건이 唐의 공격 시점에 행해졌다는 것은 이를 통해 위협적인 외교관계를 해결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고 이는 『金光明經』「四天王品」에 근거한 사천왕 신앙의 호국적 성격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7]

발견된 사천왕상들은 비록 완형은 아니지만 두 마리 악귀위에 걸터앉은 좌상으로 몇 개의 대표적인 파편을 모아 복원한 결과 칼을 든 상과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상을 알아볼 수 있다(도 10-a,b,c,d,e,f).[28] 상들의 단편을 살펴보면 갑옷의 세부묘사가 뛰어나고 악귀에 올라앉은 천왕의 자세가 자연스러울뿐만 아니라 악귀의 익살스런 표정이나 다양한 자세 그리고 근육표현 등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복원된 상 가운데 왼손에 검을 든 상은 서로 등을 돌리고 앉은 악귀의 등위에 두 다리를 모두 내린 倚坐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앉아있다(도 10-a,b). 악귀는 천왕을 받치는 힘을 지탱하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고 있으며 머리칼 끝이 고사리처럼 말려있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다.

복원된 다른 상은 머리에 새깃이 달린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활을, 오른손에는 화살을 들고 두 다리를 내리고 앉아 있다(도 10-c,d,e). 얼굴은 눈썹위에 살붙임을 하므로써 미간에 힘을 주어 분노상을 띤 매우 사실적인 표정을 보여준다. 향좌의 악귀는 검을 든 상의 악귀들과 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으며 향우의 악귀는 정면을 향해 앉아서 오른손으로 천왕의 다리를 잡고 있다.

---

25) 신인비법은 원래 東晋 永嘉年間(307-312)에 帛尸梨蜜多羅가 전역한 『灌頂經』의 제7경인 『복마봉인대신주경』의 사상과 교법에 의한 것이 사실이나 명랑의 신인비법은 그 경의 사상, 교법과 더불어 『金光明經』, 『大方廣十輪經』의 사상이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26) 『三國遺事』에 인용된 「國史」에 의하면 절을 완성한 것은 調露 원년(679)이라 하며(『三國遺事』 卷2, 紀異第2 文虎(武)王 法敏 條) 『三國史記』에서도 사천왕사의 落成을 문무왕 19년(679)이라 하고 있다(『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下條).

27) 일본에서도 이 경의 교훈에 따라 사천왕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出口常順, 위의 논문, p.12 참조).

28) 사천왕사지상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姜友邦,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浮彫像의 復元的 考察 - 五方神과 四天王의 造形的 習合現象-」, 『美術資料』제25집(1979, 12), pp.1~46 참조.

圖 10-a. 四天王寺址 彩釉四天王像, 統一新羅(679년)

圖 10-b. 四天王寺址 彩釉四天王像 복원도(姜友邦,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像浮彫像의 復元的 考察」, 『美術資料』제25집(1979.12), p. 9 도면 4)

圖 10-c. 四天王寺址 彩釉四天王像, 統一新羅(679년)

圖 10-d. 四天王寺址 彩釉四天王像 복원도(姜友邦,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像浮彫像의 復元的 考察」, 『美術資料』제25집(1979.12), p. 9 도면 4)

圖 10-e. 四天王寺址 彩釉四天王像, 단편, 統一新羅(679년)

圖 10-f. 四天王寺址 彩釉四天王像 단편, 統一新羅(679년)

반가좌한 천왕의 다리부분만 남아있는 또 다른 단편을 살펴보면 펑퍼짐하게 정면을 향해 엎드린 악귀는 옆으로 퍼진 코에 양볼이 튀어나오고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머리칼은 마치 불상의 나발처럼 소라모양으로 말려있다(도 10-f).

통일신라시대의 사천왕상이 모두 입상으로 표현된 것에 비해서 사천왕사지에서 발견된 사천왕상이 악귀위에 걸터앉은 倚坐와 半跏坐의 표현은 통일신라시대에는 다른 예가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이러한 자세에 대해 언급한 경전으로는 『一字佛頂輪王經』이 있다. 이 경은 唐代 8세기 초엽인 705년에 인도출신 승려인 菩提流支가 번역한 밀교경궤인데 이 경의 제 1권 畵像法品에서는 각 사천왕의 지물과 손모양을 언급한 뒤에 이들 護世天王은 각자 무늬가 장식된 갑옷을 입고 半跏趺坐를 하고 있다고 說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의좌상과 반가좌상이 함께 제작된 사천왕사상은 경전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경전보다 먼저 전해진 畵本 등에 의해 제작되었고 따라서 경전에서 설하는 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입상의 사천왕상이 많으나 두 마리의 악귀위에 앉아있는 좌상형식 또한 석조나 금동 혹은 회화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어 唐代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천왕사상의 자세나 표현양식에서 비교가 가장 잘 되는 예로는 672-675년에 걸쳐 조영되었다고 하는 龍門石窟 奉先寺洞의 본존인 盧舍那佛의 대좌면에 조각된 天王像을 들 수 있다

圖 11. 龍門石窟 奉先寺洞 본존대좌 천왕상, 唐(672-675년)

(도 11). 용문석굴의 이 천왕상은 정면을 향해 마치 불상의 유희좌와 같은 자세로 나란히 앉아 있는 두 마리 악귀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다. 반가좌를 표현하기 위해 오른다리를 내리고 있으나 악귀위에 어색하게 걸쳐있는 형상이다. 이 봉선사의 상들과 비교하면 사천왕사상은 악귀위에 앉은 자세가 자연스러울뿐 아니라 천왕이 입고 있는 갑옷의 세부 묘사도 보다 정교하며 악귀의 익살스런 표정이라든가 근육표현에서도 봉선사상에 비해 손색없는 표현을 취하고 있다. 천왕상이 취하고 있는 자세의 자연스러움은 기본적으로 악귀가 마련해주는 대좌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봉선사상의 악귀는 천왕의 대좌라기보다는 천왕에 의해 짓눌려있는 불편한 자세를 보이는데 비해 사천왕사지상의 두 악귀는 서로 등을 돌려 엎드린 자세를 취해 천왕이 편히 앉아있을 수 있는 대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圖 12. 石造 사리기 사천왕상, 唐代

또 다른 예로 唐代에 제작되었다고 전하는 석조 사리기가 있다.(도 12)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방형 사리기 각 면에 표현된 천왕상은 약 22.5cm 크기로 악귀위에 걸터 앉은 모습의 고부조이다. 왼손을 턱에 괴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악귀위에 앉아있는 천왕상은 오른다리는 내리고 왼다리는 악귀위에 걸친 채 앉아있는 반가의 자세로 봉선사상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운 자세를 보여준다. 천왕상의 좌우에는 창을 들고 있는 야차신이 천왕을 향해 서있다. 사천왕사상과 비교하면 악귀가 하나이고 야차신이 배치된 점이 특이하다.

西安남쪽 약 120km 지점 扶風현에 위치한 法門寺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절로 유명한데 1987년 이 절의 진신보탑 地宮을 발굴하면서 8중의 사리기가 발견되었고 이 사리기 중 두 번째의 방형사리기에도 네 면에 돌아가며 좌상의 천왕이 새겨져 있다.[29] 법문사 지궁은

唐 懿宗 咸通 15년(874)에 封閉되었으므로 이 사리기는 늦어도 874년에는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국천상은 양손에 검을 들고 증장천은 왼손에 검을 기둥처럼 세워들고 있으며 서방광목천은 왼손에 활과 오른손에 화살을 들고 있다. 북방다문천은 왼손에 보탑, 그리고 오른손에 금강저를 들고 있다. 악귀 둘이 서로 등을 보이며 엎드려 마련해준 자리에 천왕상은 역시 반가좌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앉아있으며 주변에는 야차신들이 시립해 있다.

좌상의 중국 사천왕상의 또다른 예로는 시대가 좀 내려오지만 제작연대가 확실한 대영 박물관소장의 사천왕상이 있다(도 13-a,b). 이 사천왕상들은 890년에 그려진 회화작품으로 각 폭마다 천왕의 이름이 묵서되어 있다. 검과 활 등의 지물을 들고 반가좌의 자세로 두 마리 악귀위에 앉아있으며 야차신이 1구씩 시립해 있다. 이중 활을 들고 있는 상은 '*東方提頭賴吒天王', 검을 들고 있는 상은 '*西方毘樓博叉天王'이라 되어있다. 이 상들은 좌상인 점뿐만 아니라 검과 활 등 지물의 종류나 검을 세워들고 있는 자세 등에서도 사천왕사상과 꽤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晩唐期 돈황막고굴이나[30] 中唐期 안서 유림굴 등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있고[31] 현재 알려진 唐代 중국의 사천왕좌상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전해오는 작품수가 많다. 중국의 사천왕 좌상들을 살펴보면 반가좌의 자세로 악귀 위에 앉아있는데 사천왕사상과 비교하면

13-a. 持國天像

13-b. 廣目天像

圖 13-a,b. 敦煌出土 紙本彩色四天王像, 唐代(890년), 대영박물관

29) 法門寺博物館, 『法門寺』, 陝西旅遊出版社(1994), pp.130~131.

30) 막고굴 제12굴 전실서벽문구 남·북 벽화천왕상, *Mission Pelliot* Ⅱ(1920~1924), 도 336·335 참조.

31) 안서유림굴 제15굴 전실남벽 및 북벽 벽화천왕상, 『中國石窟 安西榆林窟』, 平凡社(1990), 도 4·5.

야차상이 한 둘씩 시립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좌상을 한 사천왕상은 남북조시대나 수대에는 남아있는 예가 없으므로 이러한 형식은 당대초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중에는 사천왕사상외에는 좌상의 사천왕상은 전하는 작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는 입상의 사천왕상을 선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천왕사상과 비교할만한 일본의 예로는 大東急記念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新羅 河成이 그렸다고 하는[32] 사천왕상 도상이 있다.[33] 이 도상의 사천왕상은 두 상이 검을 들고 있으며 활과 화살을 잡고 있는 상과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하며 검을 든 형이 있는데 모두 악귀위에 앉은 좌상이다. 하성의 활동시기로 볼 때 9세기 전반에 그려졌으리라 짐작되는 이 도상에는 역시 권속이 시립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7세기 후반의 사천왕상 가운데 좌상의 예가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 통일신라처럼 입상을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좌상의 사천왕상들에는 대부분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상이 포함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좌상의 사천왕 도상에 야차신이 시립해 있는 것을 보아도 일정한 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사상은 이러한 도상가운데 야차신을 생략하고 있어 좌상의 사천왕상 형식을 나름대로 변형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천왕을 비롯한 불교의 신장상은 갑옷을 착용하여 호법신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갑옷표현은 형식분석을 통하여 제작연대까지 판정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요소이다.[34] 사천왕사지의 사천왕상은 두 상 모두 목에는 襟甲을 두르고 肩甲과 胴着위에 胸甲, 하체에 腰甲과 腰帶 등의 공통된 형식을 보여준다. 세부표현을 보면 견갑은 동물 頭像으로 장식하였으며 흉갑의 내부는 봉황같은 새로 장식하거나(도 10-a) 요대밑에는 鶻尾라고 하는 꽃잎모양 장식을 했으며 하체 정면에 장방형 前當을 내려뜨리고 있다(도 10-c).

이 가운데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동물머리로 장식된 어깨甲, 팔꿈치에서 나팔꽃처럼 펄럭이는 소매와 배에 표현된 동물머리, 요대밑에 두른 鶻尾, 그리고 요갑 정면에 늘어진 前當 등인데 장식적으로 화려해진 표현을 보인다. 이러한 갑옷의 요소는 중국에서 주로 7세기 중반이후의 신장상에 많이 보이고 西安 羊頭鎭에 있는, 總章元年(668)에 사망한 李爽墓 出土의 武士像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장례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35] 이러한 요소를 조합

32) 河成은 백제 계통의 화가로서 일본의 기록『文德實錄』에 의하면 782년생으로 853년 8월에 죽었는데 무예와 그림에 뛰어났으며 특히 인물화와 산수화를 모두 잘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본래의 성이 餘씨였으나 구다라 즉 百濟로 바꾸었다(안휘준, 「韓日繪畵關係 1500年」,『韓國繪畵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7, p.402 참조).

33)『大正新修大藏經 圖像編』七, pp.530-533. 이 도상의 裏書에는 '以四天王寺第二傳本寫之新羅國河成筆'이라 쓰여있다(林 溫, 「東京國立博物館保管・十六善神畵像について」,『Museum』433(1987.4), p.34의 주43).

34) 무장형 도상의 갑옷형식을 시대별로 분석한 예는 중국과 일본에서 볼 수 있다(楊泓, 「中國古代的甲冑」,『考古學報』(1976年 2期), pp.49-95 및 松田誠一郎, 「菩薩像, 神將像の意匠形式の展開」,『東大寺と平城宮』, 日本美術全集 4, 講談社(1990), pp.185-188).

한 갑옷은 唐代 사천왕상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용문석굴에서는 7세기 중엽경 潛溪寺의 천왕상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36] 그 초기의 예로는 永徽3년(652)명 大唐三藏聖教序碑및 同序記碑에 부조된 이천상을 들 수 있다(도 14).[37] 두 비는 현장이 번역경전의 總序를 내려줄 것을 청하여 太宗과 태자 李治에게 받은 撰文으로 猪遂良의 글씨를 새긴 것인데 현재 탑의 최하층 남면입구 좌우감에 안치되어 있다. 이들의 갑옷은 남북조에서 수대에 걸친 武士俑이나 사천왕상 등에서 볼 수 있던 장식없이 세부구성 요소가 단순한 형식의 甲과 비교하면 신체의 각부를 보호하는 갑옷의 부분이 잘 갖춰졌다. 여기에 장식성을 더하여 의장이 화려해진 甲의 형식은 용문 봉선사동상에서 볼 수 있으며(도 15) 680년의 용문 萬佛洞 전벽 천왕상의 甲도 獸頭

圖 14. 西安, 慈恩寺 大雁塔 大唐三藏聖教序碑 四天王像, 唐(652년)

圖 15. 龍門石窟 奉先寺洞 북벽 天王像, 唐(672-675년)

35) 水野敬三郎, 위의 논문, p.75.

36) 楊泓, 「中國古代的甲冑」, 『考古學報』(1976年 2期), p.55.

37) 慈恩寺는 唐 貞觀22년(648) 당시 황태자였던 高宗 李治가 그의 어머니를 추모해서 창건했던 절이다. 太宗은 645년 귀국하여 弘福寺에 있던 玄裝을 이 절 상좌로 두고 역경원을 세워 현장이 가지고 돌아온 佛典의 번역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고종은 이러한 경전을 안치하기 이해 652년 절안에 5층의 大雁塔을 세웠다. 그 뒤 장안년간(701-704)에 탑을 7층으로 지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肩甲, 요대밑의 鶻尾, 前當 등을 갖춘 형식이다(도 16). 또한 위 중국상과 사천왕사상은 襟甲하단이나 胸板·腹甲의 緣部, 脛當 등에 장식이 풍부하다. 따라서 사천왕사상의 갑의는 그 형식이 완비된 초당기 사천왕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사지의 사천왕 가운데 한 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천왕 도상으로는 드물게 활과 화살을 지물로 한 예가 있어 주목된다. 執弓矢형식에 대해 설하는 경전으로는 남방불교 율장의 불전인 『有部毘奈耶破僧事』가 있고[38] 또다른 경전으로는 693년에 한역된 『不空絹索陀羅尼自在王呪經』을 들 수 있다(표 1). 그런데 이 경에서는 활과 화살을 광목천왕의 지물로 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執弓矢 사천왕상은 중국에도 남아있으나 현재 전하는 예는 모두 제작연대가 사천왕사상보다 내려간다. 예를 들어 중당기 安西 榆林窟 제15굴 전실 남벽에 보이는 벽화 천왕상이나[39] 돈황막고굴 17굴에서 발견된 9세기의 사천왕화상(도 17-a,b) 혹은 新疆省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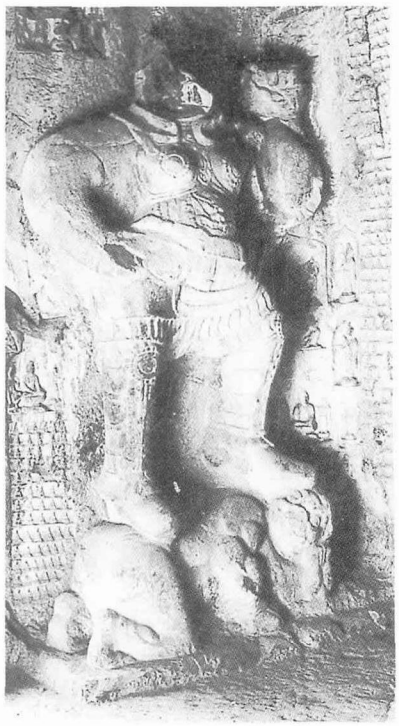


圖 16. 龍門石窟 萬佛洞 전벽 四天王像
唐(6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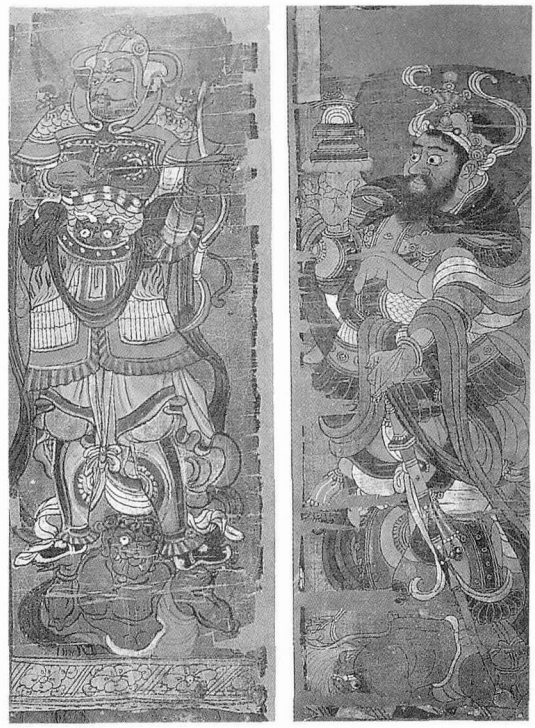


圖 17-a,b. 敦煌 막고굴 제17굴 발견 絹本彩色四天王像
(집궁시상,다문천상), 唐(9세기)

38) 석가모니가 모태로 내려올 때 사천왕은 마야부인을 호위하는데 이 때 '사천왕 가운데 '하나는 날카로운 칼을 잡고 하나는 비단 노끈을 잡고 하나는 창을 잡고 하나는 활과 화살을 잡는다'고하여 존명은 밝히지 않았다(『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제2권).

39) 『中國石窟 安西榆林窟』, 平凡社(1990), 도 4.

육출토의 天王幡 등에서 집궁시의 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연대가 확실한 예로는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890년의 사천왕화상을 들 수 있는데 이 그림에는 '*光東方提頭賴吒天王'이라는 中國名의 지국천 묵서명이 있어 천왕의 존명을 확인하는데 참고할 만하다(도 13-a).

執弓矢한 사천왕상의 예는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시대는 내려오지만 일본 天平미술의 대표격인 東大寺의 8세기 중엽의 戒壇院廚子扉繪 四天王圖像이나(도 24-a) 하성이 그렸다고 하는 사천왕 도상에도 보이고 있다. 특히 戒壇院廚子扉繪 도상은 鑑眞청래의 唐本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하므로 이러한 도상이 당시 중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증장천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중국, 일본의 예를 통해보면 지국천이나 증장천의 지물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활과 화살만으로 존명을 결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40] 또한 弓矢를 지물로 하는 형식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특이한 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41]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집궁시 사천왕상이 제작되었던 것은 위와 같은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천왕상의 도상에서는 갑옷을 입은 상자체에도 특징이 있으나 악귀를 밟거나 걸터앉은 것도 도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사천왕사상의 악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엎드려 있는데 귓바퀴는 어깨까지 내려오며 머리카락 끝이 말리고 둥그렇고 큰 눈에 코는 납작하고 콧마루가 넓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도 10-a,b,c,d,e,f). 이러한 사천왕사상의 악귀에 대해서는 일본 藥師寺 金堂 本尊 臺座의 異形像과 유사한 표현임을 지적하여 이들 이형상의 원류가 될만한 자료로 제시된 바 있으며[42] 용문 봉선사동 천왕상이 밟고 올라선 악귀나(도 15) 돈황 제46굴의 악귀 등 唐代 악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원래 불교도상에 나타나는 중국의 鬼는 漢民族 고유 神의 형상을 취해서 조형되었는데[43] 전통적인 중국의 鬼의 형상은 돈황석굴 제 384굴이나 용문석굴의 7세기후반 奉南洞 서벽 천왕상의 악귀에서처럼 머리카락이 불길처럼 위로 솟아오르고 콧마루없이 넓게 퍼져 구멍이 정면을 향해 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두서너개인 특징을 보인다.[44] 이러한 악귀와 비교해보면 사천왕사상의 악귀나 唐代의 일반적인 악귀형상은 표현형식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호탄의 3-4세기경 단단윌릭 사원지에서 발견된 사천왕상이 밟고 올라선 악귀 역시 동그란 얼굴에 소라모양으로 말린 머리칼과 평퍼짐하게 넓은 코의 형상을 하고 있다.[45] 이러한 상으로 미

40) 통일신라시대의 화엄사 서오층석탑의 예와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의 고려시대 사천왕화상에 근거하여 증장천상으로 추정된 바 있다(姜友邦, 위의 논문, p.21).

41) 姜友邦, 위의 논문, p.21.

42) 淺湫 毅, 위의 논문, p.59.

43) 淺湫 毅, 「藥師寺金堂本尊臺座の異形像について」, 『佛教藝術』208(1993. 5), pp.63-64.

44) 『敦煌的藝術寶藏』 도판 59 및 『中國石窟 龍門石窟』 II, 平凡社(1988), 도판 137 참조.

루어볼 때 악귀 역시 사천왕도상과 함께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뒤 唐代 무장형 사천왕상 도상이 정립되면서 전통적인 중국 鬼를 대신하여 악귀에서도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感恩寺址 사천왕상

통일신라 초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하면서 연대추정이 가능한 또다른 예는 1959년 감은사지 서탑에서 그리고 1996년 다시 동탑에서 발견된 사리구의 사리함 네 벽에 부착된 두 셋트의 사천왕상이다. 感恩寺의 조성에 대해서는 신라 제30대 文武王(661-681)이 倭兵을 진압코자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완성을 보지못한 채 죽자 그 아들 神文王이 682년에 공사를 마치고 절 이름을 感恩寺라 했으며 金堂 뜰 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 두고 용이 들어와 돌아다니게 했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이 전한다.[46] 감은사 유지에 있는 동서 두 기의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가람배치에서 석탑의 쌍탑가람제로는 가장 이르고 두 탑에서 나온 사리함의 구조 역시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먼저 발견되어 잘 알려져 있는 서탑 사리함의 사천왕상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네모난 사리함의 네면에 부착된 사천왕상은 모두 입상으로 頸甲, 肩甲, 胸甲, 腹甲, 腰甲으로 구성된 唐代의 明光甲을 몸에 꼭 맞게 착용하고 양이나 惡鬼를 밟고 있다(도 18-a,b,c,d). 네 상이 각각 창, 보주, 금강저, 탑을 들고 있는데 모두 광배에서 대좌까지 21.6cm 안팎의 小像이긴 하나 형태가 정확하며 세부 표현 또한 정밀하다. 감은사상은 원형두광을 갖추었으며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고 분노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눈썹위와 미간에 도톰한 살붙임을 하였으나 작고 통통한 얼굴은 무섭다기보다 오히려 귀여운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러한 인상은 감은사 사천왕상 모두에 공통되는 것으로 콧수염과 함께 서역인의 풍모를 느끼게 한다. 중국에서는 652년의 성교서비와 동서기비의 신장상에서도 볼 수 있는 형상으로(도 14) 이들 중국상은 모두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콧수염을 표현하였는데 얼굴모습은 다소 둥근 편이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각 상들의 명칭은 발견할 때의 위치나 탑을 들고 있는 다문천을 기준으로 붙여졌다. 그중에 지국천상은 거의 완형으로 남아있는데 발을 벌려 羊의 등을 밟고 서 있다(도 18-a). 정면을 향해

45) 『西域文化研究』 五(中央アジア 佛教美術), 法藏館(1962), p.100의 도 190 참조

46)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萬波息笛條에 인용된 寺中記. 문무왕은 평소, 죽으면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어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말해왔다고 하는데(『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文虎(武)王 法敏條) 실제로 金堂 기단부 床上의 기묘한 구조는 다른 예를 볼 수 없는 것으로 感恩寺에 海龍이 서리게 했다는 설화를 뒷받침하고 있다(金載元 · 尹武炳, 『感恩寺址發掘調査報告書』, 國立中央博物館(1961) 및 金載元, 「感恩寺西塔發見舍利容器」, 『MIZUE』 720(1965, 2), pp.12-13 참조).

圖 18-a. 感恩寺 서탑사리구 四天王像 (持國天), 통일신라(6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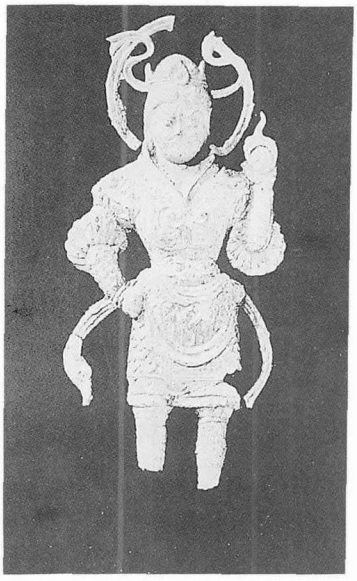


圖 18-b. 感恩寺 서탑사리구 四天王像 (增長天), 통일신라(682년)

圖 18-c. 感恩寺 서탑사리구 四天王像 (廣目天), 통일신라(6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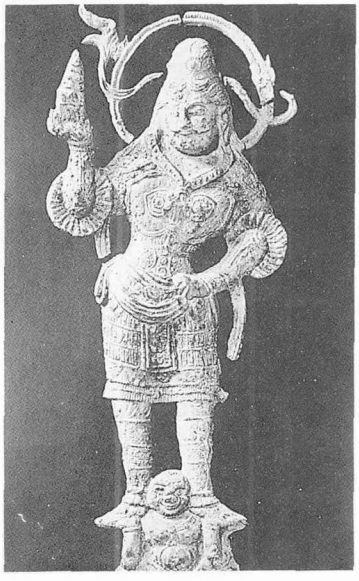


圖 18-d. 感恩寺 서탑사리구 四天王像 (多聞天), 통일신라(682년)

머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려 변화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 왼손에는 창을 잡고 있는데 밑부분은 결실되었다.

감은사의 사천왕상중에서도 동물을 밟고 있는 지국천상의 자세와 가장 유사한 중국의 예는 河南省 房山 雲居寺 탑의 사천왕상이다(도 19). 방산 운거사탑의 상은 그러나 시대가 8세기초인 712년이라서 초당기는 아니나 중국에서는 그러한 도상이 계속 이어오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감은사상과 운거사상은 자세뿐만 아니라 요갑밑으로 표과의 끝단이 보이는 세부표현 외에 동물을 밟고 서 있는 대좌에서도 공통된다. 중국에서는 호법신이나 사천왕상의 대좌로서 양이나 소 등의 동물을 취한 예가 꽤 많이 있으나 초당기를 지나면서 점차 악귀좌로 확립되어 간다. 감은사지상의 대좌는 동물과 악귀가 혼용되었는데 이는 동물좌에서 악귀좌로 대체되어가는 초당기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47] 더구나 감은사지상이후 우리나라에서 동물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장천상은 정면향의 직립자세로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왼손은 어깨 높이에서 화염보주를 받쳐들고 있다(도 18-b). 발목이하가 없어져 원래 獸座인지 惡鬼의 座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사천왕상이 보주를 들고 있는 예는 많지 않은데 『陀羅尼集經』에 기초한 형식이어 주목된다.

서방광목천상은 얼굴을 왼쪽으로 틀어 두 눈을 부릅뜨고 오른쪽 다리와 금강저를 든 오른손을 위협적으로 들어올리고 있다(도 18-c). 왼손은 허리에 대고 있으며 무릎이하는 없어졌다.

다문천상은 오른손을 높이 올려 보탑을 받들었으며 왼손을 허리에 대고 악귀 어깨위에 三曲자세로 서 있다(도 18-d). 이러한 자세와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중국의 예는 용문 봉선사 동상이며(도 15) 유사한 악귀의 자세는 수말당초의 돈황 380굴 천왕상 악귀에서도 볼 수 있다.

7세기 후반 통일신라기 사천왕상의 도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세부묘사가 정교한 갑옷과 함께 분노한 얼굴표정, 신체를 약간 비틀고 위협적으로 뻗친 팔자세 등이라 할 수 있다. 사천왕상에 보이는 사나운 얼굴표정은 중국의 唐代 천왕상에도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다. '부릅 뜬 눈과 크고 높은 코'는 서역인의 얼굴특징으로 중국 문헌에서는 '沈目高鼻[깊이 들어간 눈과 높은 코]'로 표현되어 있다.[48] 평면적인 안면구조를 한 중국인들의 눈에는 서역인의 이런 모습이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서역인의 '沈目高鼻'형 얼굴이 위협적인 표정의 천왕 얼굴로 채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49]

---

47) 水野敬三郎, 「感恩寺西塔舍利具四天王像」, 『佛教藝術』第188號(1990. 1), p.77.

48) 『北書』, 97, p.3209.

49) 사천왕상뿐만 아니라 경주 괘릉의 무인석상이나 서악동 고분의 石扉신장상 그리고 구정동 방형분출토 우주석의 무사상 등 무인형의 여러상에서 이러한 서역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圖 18-1-a. 感恩寺 동탑사리구 四天王像 (持國天), 통일신라(682년)

圖 18-1-b. 感恩寺 동탑사리구 四天王像 (增長天), 통일신라(682년)

圖 18-1-c. 感恩寺 동탑사리구 四天王像 (廣目天), 통일신라(682년)

圖 18-1-d. 感恩寺 동탑사리구 四天王像 (多聞天), 통일신라(682년)

圖 19. 河南省 房山, 雲居寺塔 四天王像, 唐(712년)

감은사지 사천왕상은 생동감있는 표정과 동적인 자세외에도 균형잡힌 몸매에 갑옷이 밀착되게 입혀졌고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여 나타낸 율동적인 인체표현은 삼국시대의 상과는 다른 새로운 조형감각을 보여준다. 모두 한 손은 허리에 대고 있는데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상도 있어 삼국시대의 황룡사 사리기상과 비교하면 변화있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와같이 한 다리를 들어올려 惡鬼를 밟은 자세는 652년의 大唐三藏聖教序碑와 同序記碑의 천왕상에서 볼 수 있었다(도 14). 낙양의 용문석굴 천왕상들은 거의 직립자세이다가 상원 2년(675) 완성된 봉선사동 사천왕상에 이러한 동적인 자세가 채용되고 있어서 그 자세의 원류를 중국 장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50] 그러나 이렇게 한 쪽 다리를 올려 세우거나 한 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자세의 원류를 찾아보면 돈황막고굴 285굴의 서위시대 벽화에 보이는 사천왕상에서 이미 나타나며(도 5) 제427굴 남벽서측의 수대 조각 사천왕상에서도 보이고 있어(도 8) 중국에서는 이미 6세기부터 나타난 고식임을 알 수 있다. 隋末唐初의 돈황막고굴 제380굴 동벽북측에 그려진 사천왕상에서도 역시 비슷한 자세의 상이 발견된다.[51]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무덤안에 갑옷입은 무사를 배치하여 무덤을 호위하도록 하는데 이런 무사들은 방패를 앞세우고 두 다리를 모은 자세로 직립해있어 사천왕상의 동적인 자세와는 매우 다르다. 무덤호위 무사상과는 다른 사천왕상의 이런 동적인 자세는 중국의 전통적인 무사형 도상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역의 무장형 도상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감은사지 서탑 사리구 사천왕상이 착용한 갑옷을 살펴보면 목에는 頸當을 두르고 어깨에는 肩甲을 했는데 남방 증장천상과 서방 광목천상은 獸頭로 된 장식을 하였다. 가슴엔 胴着을 입고 胸甲으로 무장하였다. 반소매를 한 팔에는 소매장식이 표현되었고 팔뚝은 腕當을 착용하고 있다. 하체에는 腰甲위에 腰帶를 두르고 그 밑에는 花瓣形의 장식을 둘렀으며 하체 정면에는 前當을 내려뜨리고 있다. 腰甲밑으로는 표과의 끝단을 볼 수 있고 裳은 입지 않았으며 다리에는 袴위에 脛當을 둘렀다. 사천왕사상이 장방형의 복갑을 두르고 裳을 입었으나 팔에는 腕當을 하지 않은 이외에 감은사상 甲衣 형식은 사천왕사상과 공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은

50) 岡田 健, 「龍門石窟唐代造像論-その三 高宗前期-」, 『佛教藝術』第16號(1989), pp.97-98.

51)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二, 平凡社(1981), 도 190.

사의 다문천상에는 胸當아래에 새긴 세로의 평행선을 볼 수 있는데 봉선사동 다문천상, 향적사 전탑 천왕상에도 유사한 형이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西安 香積寺 大塼塔의 石刻天王像과는 裳의 길이를 약간 길게 늘어뜨리는 점을 제외하면 감은사상과 그 형식이 완전히 일치한다.[52]

한편 1996년 봄, 감은사지 동탑의 해체 수리시에 서탑에서와 유사한 형식의 사천왕상이 부착된 사리기가 발견되어 7세기 후반 불교조각양식과 공예의 기술수준을 전해주는 또다른 중요한 예로 평가된다. 金銅 舍利外函의 동서남북 각면에는 사천왕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鬼面고리가 부착되었으며 그 위로 구름문이 표현되는 등 서탑 사리기 형식과 유사하다. 부착된 사천왕상은 16~17cm 정도의 크기로 원형두광을 갖추었으며 가는 허리를 강조하듯이 명광갑을 몸에 꼭 맞게 착용하고 한 손에 지물을 들고 악귀나 동물에서 서 있는 입상이다(도 18-1-a,b,c,d). 갑옷은 견갑과 흉갑 그리고 요갑으로 구성되었으며 요갑 정면에는 장방형의 前當이 표현되었다. 머리칼은 정수리에서 묶었는데 뒷머리는 어깨위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지국천상은 오른손을 가슴에 댄 채 왼손에는 금강저를 지팡이처럼 아래로 내려잡고 웅크린 악귀위에 서있는데 금강저 끝은 악귀의 어깨에 닿아있다(도 18-1-a).

증장천상은 정면을 향한 직립자세로 서있으나 발밑에 대좌는 결실되어 악귀좌인지 동물좌인지 확인할 수 없다. 왼손을 허리에 대고 오른손에는 짧은 검을 들었는데 팔을 머리위로 높이 쳐들어 위협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도 18-1-b).

광목천상은 왼손을 허리에 대고 지물을 든 오른손을 가슴높이로 들어올렸는데 오른다리까지 높이 쳐들어 위협적인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도 18-1-c). 쥐고있는 지물은 굵기로 보아 창으로 짐작되나 대각선방향으로 쥐고 있어 사천왕상들이 창을 수직으로 곧게 세워들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지물은 단검 정도의 길이만 남고 나머지는 파손되었다. 대좌 역시 파손이 심하나 남아있는 부분으로 보아 악귀좌인 듯하다.

다문천상은 오른손에 3층의 탑을 들고 왼손은 허리에 대고 오른다리를 약간 들어올린 채 소를 밟고 서 있다(도 18-1-d). 얼굴은 탑과는 반대방향인 왼쪽으로 돌리고 있다.

동탑의 사천왕상을 서탑상과 비교해보면 금강저, 창, 탑 등의 지물을 들고 악귀나 동물위에 서서 팔과 다리를 위협적으로 들어올린 모습이나 갑옷의 구성과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 이를 통해 감은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기의 사천왕상이 7세기 후반 중국 사천왕상의 최신 도상을 받아들여 제작했듯이 동탑상 역시 그러한 도상에 의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의 구성요소나 전체적인 형식 등의 도상에 있어서는 서탑상과 공통되나 세부표현에서는 매우 생략적이며 그 조각수법이나 정교함이 서탑상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기술수준의

52) 水野敬三朗, 위의 논문, p.75.

차이는 시대적인 선후관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기술수준이 다른 장인이나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7세기 후반 통일신라와 중국 사천왕상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양식을 白鳳기 일본의 사천왕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680년대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奈良의 當麻寺 금당 사천왕상이 그 예로 이 사천왕상은 한 손에 창과 다른 손에 검 등을 들고 움직임없이 서 있는 입상이다(도 20). 明光甲을 착용하였는데 어깨에는 被巾을 두르고 소매는 길게 늘어지고 있다. 642-655년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奈良의 法隆寺 금당의 목조 사천왕상과[53] 비교할 때(도 3) 이러한 服制라든가 양손에 지물을 들고 움직임없이 직립한 신체표현 등에서 공통되는 古式을 나타낸다고 하여 중국의 南北朝期에서 隋로 이어지는 양식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흉갑밑 배 양쪽에는 장방형 복갑이 표현되고 하반신 前面에는 전당도 나타나는 등 法隆寺 金堂상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또한 미간과 눈썹위에 살붙임을 하고 눈꼬리에 주름을 표현하거나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른 사실적인 모습으로 法隆寺 금당 사천왕상에 보이는 古式의 경직된 감각에서 벗어나 있고[54] 이러한 기법은 7세기 후반의 통일신라 사천왕상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55]

圖 20. 當麻寺 金堂 四天王像(增長天), 白鳳(680년 추정)

특히 當麻寺의 창립배경에 대하여 신라가 영향을 미쳤으리란 추측을 가능케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56] 이것은 7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양식이 일본의 白鳳시대 當麻寺의 諸像 특히 사천왕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배경이라 생각된다. 當麻寺상은 문화형성에 있어 중국 남조문화와 연결되는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던 시기인 飛鳥時代에 조성된 일본의 法隆寺 金堂 四天王像이나 玉蟲廚子

53) 「法隆寺の夢殿本尊求世觀音立像と金堂四天王像について」, 『上代彫刻史の研究』, 吉川弘文館(1977), pp.212-220.

54) 岡田 健, 「初唐様式と飛鳥時代後期の彫刻」, 『法隆寺から藥師寺へ』日本美術全集 2, 講談社(1990), pp.193-194.

55) 當麻寺 금당에 있는 塑造 미륵불본존은 사천왕상과 거의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百鳳시대 작품이다. 이 상이 표현하고 있는 큰 머리에 목이 짧고 하체에 비해 상체가 훨씬 살집이 두툼하고 장대한 볼륨감 등은 7세기말경 작으로 추정되는 경북 군위군 팔공산 아미타삼존의 본존과 공통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지적된 바 있다(李玉珠, 『統一新羅 佛教彫刻様式이 日本 奈良 彫刻에 미친 影響』,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88. 6), p. 64 참조.).

56) 아하 當麻寺의 창립배경에 대해서는 李玉珠, 위의 논문, pp.64-66 참조.

扉繪 사천왕상의 형식이나 양식적인 특징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전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當麻寺像에서 보이는 갑제의 형식이라든가 조각양식의 차이는 초당의 새로운 양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에는 초당기의 새로운 도상과 양식을 수용하여 나름대로 소화해낸 신라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57] 중국에서는 용문석굴 봉선사동상이 당시 불교조각 양식의 수준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듯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사천왕사상이나 감은사상 역시 봉선사상과 비슷한 도상을 받아들여 나름대로의 표현양식을 정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의 불교조각계는 자국의 양식을 새롭게 형성 전개시켜 가면서 당시 긴밀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7세기 후반 奈良시대 불교조각양식에 수용되어 唐조각과 더불어 새로운 외래요소로서 크게 작용을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7세기 후반의 통일신라 사천왕상과 갑옷형식과 자세, 지물 등에서 공통된 형식을 보여주는 唐代 중국 사천왕상이나 일본상과를 비교해보면 당시 세 나라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공통된 도상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크기와 재료면에서는 크게 다르더라도 통일신라 사천왕상은 새로운 중국 도상을 재빨리 받아들여 나름대로의 양식으로 소화해낸 통일초 신라 조각계의 우수한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세부장식에 대한 세밀한 묘사라든가 섬세한 살붙임을 하여 나타난 생생한 얼굴 표정, 부조임에도 불구하고 환미감을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표현에서 조각기술의 발달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4) 8세기 石窟庵의 사천왕상

8세기에는 석탑이나 석등에 조각된 통일신라기의 많은 사천왕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石窟庵 굴내의 四天王像을 들 수 있다. 석굴암은 『三國遺事』 권5, 孝善 第9 大城孝二世父母神文代 條를 통해 이 안에 안치된 불상조각은 8세기 중엽이후 신라조각을 대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大城이 이승의 부모를 위하여 佛國寺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石窟寺를 지었다고 하며, 인용된 「鄕傳」을 보면 景德王 때 大相이었던 金大城이 天寶 10년(751)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으나 大歷 9년(774)에 죽자 나라에서 완성시켰다 한다. 이 가운데 사천왕상은 완숙해진 조각기법을 바탕으로 도상적 특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세련된 조각기술을 통해 사실적 조각미를 구현한 훌륭한 작품으로 7세기 후반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온 통일신라 조각계의 축적된 역량을 감지할 수 있다(도 21-a,b,c,d).[58]

---

57) 岡田 健, 「初唐様式と飛鳥時代後期の彫刻」, 『法隆寺から藥師寺へ』日本美術全集 2, 講談社(1990), p.192.

58) 金理那, 「石窟庵 佛像群의 名稱과 樣式에 관하여」, 『정신문화연구』제15권 제3호(1992, 9), pp.3~32 및 同著, 「統一新羅 佛教彫刻에 보이는 國際的 要素」, 『新羅文化』 第八輯(1991), pp.78~86.

圖 21-a. 석굴암 사천왕상(持國天)
통일신라(8세기 중엽)

圖 21-b. 석굴암 사천왕상(增長天)
통일신라(8세기 중엽)

사천왕상은 석굴 주실로 통하는 연도 좌우벽에 표현되어 있다. 본존을 향해 우측 안쪽에는 탑을 받든 다문천상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그 옆에 동방지국천상이 배치되고 연도 좌측에는 안쪽으로부터 서방광목천상과 남방증장천상이 배치되어 있다. 석굴의 입구 내벽 좌우에 천왕 두 구만을 배치하는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석굴암의 이러한 배치는 수미단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 본래의 의미를 확립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持國天像은 惡鬼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 굴입구를 바라보고 있다(도 21-a). 오른손으로는 칼자루를 잡고 왼손은 왼쪽 가슴앞에서 펼쳐 비스듬히 세운 칼날 밑에 받쳐두고 있다. 惡鬼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양손으로 무릎을 짚어 어깨위에 올라선 사천왕을 지탱하고 있다.

南方增長天像 역시 굴입구를 향해 악귀를 밟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데 다른 상들과 달리 맨발이다(도 21-b). 두 손으로 칼을 잡은 자세는 지국천상과 비슷한데 왼손은 어깨까지 올려 비스듬히 올라온 칼날을 받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惡鬼의 자세를 살펴보면 왼팔은 상박부를 땅에 대고 오른팔은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로 손으로는 이마를 받치고 있으며 머리를 감싼 손가락이 머리위에 나타나고 있다.

지국천과 증장천상이 한 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비스듬하게 세워든 칼날을

圖 21-c. 석굴암 사천왕상(廣目天)
통일신라(8세기 중엽)

圖 21-d. 석굴암 사천왕상(多聞天)
통일신라(8세기 중엽)

받쳐들고 있는 자세는 7세기 후반의 상에는 볼 수 없던 매우 특징적인 자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사천왕상에서도 폭넓게 채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유사하게 비교되는 중국의 예는 용문석굴 경선사동 천왕상으로 이 상들은 굴입구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서서 허리부근에서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가슴을 가로질러 비스듬하게 세운 칼 끝부분에는 왼손바닥을 대고 있다(도 22-a,b). 이 경선사의 사천왕상은 661년에서 663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석굴암의 사천왕상보다 약 100년 앞서는 도상이며 이러한 자세의 천왕상이 초당의 敦煌 莫高窟에서 발견된다. 돈황막고굴 제209굴 주실 남벽서측의 미륵설법도 벽화 동측에 있는 두 구의 천왕상 중 앞에 배치된 천왕상을 비롯하여[59] 제작연대가 확실한 대표적인 예로는 642년명을 가진 막고굴 제220굴 藥師淨土變相圖[60], 686년의 제335굴 북벽의 維摩經變相圖나[61] 성당기 제125굴의 남벽설법도, 久視元年(700)銘을 가진 낙양의 千祥庵 存古閣의 증장천상이나 9세기 초반의 돈황 17굴 천수관음 만다라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중국에서는 양손으로

59) 『中國石窟 敦皇莫高屈』 Ⅲ, 平凡社(1981), 도 40.

60) 『圖說 日本の佛敎 三 淨土敎』, p.117, 도 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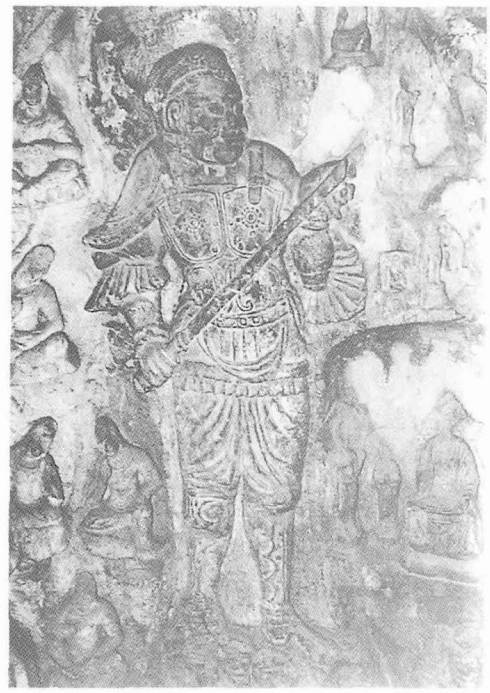
61)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三, 文物出版社(1987), 도 61 참조

검을 받든 자세의 사천왕상이 7세기 전반부터 9세기초반까지 널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상들은 칼을 받든 자세뿐 아니라 전체적인 갑옷형태와 세부묘사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용문석굴 경선사동의 남벽상을 석굴암 증장천상과 비교해보면 정면과 양측면에 장식이 달린, 머리에 두른 天冠帶와 측면 원형장식으로부터 천관대 자락이 어깨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모습과 소매자락의 처리 그리고 벨트로 처리된 요대의 표현과 짧은 요갑밑에 길게 늘어진 상의 표현 등에서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22-a).

용문 경선사동 북벽상을 석굴암 지국천상과 비교하면 윤곽선처럼 두 줄의 테를 두르고 중앙을 연주문으로 장식한 胸甲이나 흉갑의 좌우판을 연결하는 아랫쪽 연주문 그리고 수두의 장식없이 어깨를 덮고 있는 긴 견갑과 소매자락의 처리, 요대밑에서 U자로 늘어지고 허리 양옆에서 흘러내리는 천의, 그리고 경당의 형식 등이 유사하다(도 22-b). 그러나 재료가 되는 석질이나 제작과정상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석굴암상에서는 당당한 자세에서 위용이 느껴지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裳자락이나 천의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얇은 질감 등 세부적인 묘사나 조각수법면에서는 유연하고 곡선적인 처리를 하여 훨씬 부드러워진 조형감을 느낄 수 있다.

22-a. 남벽상



22-b. 북벽상

圖 22-a,b. 龍門石窟 敬善寺洞 天王像, 唐(661-663경 추정)

이러한 형식과 비교되는 중국의 또다른 예로는 현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8세기 초엽의 唐代 墓門의 양쪽에 선각된 天王像을 들 수 있다(도 23-a,b). 墓門 양쪽의 천왕상에서 외연에 연주를 돌려 견갑을 장식한 보주는 7세기후반의 용문 경선사동에서는 보이지 않던 장식적인 요소로 석굴암상과 공통되는 점이다. 또한 경선사동과 도상적인 유사성을 보인 지국·증장천상과는 달리 광목·다문천상의 脛當이 여러개의 가로구획선 대신 하나의 큰 타원형이 그려져 있는 점도 유사하며 얇은 밑창을 댄 샌들과 팔뚝에 걸쳐져 흘러내리는 천의의 처리 등에서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墓門상이 석굴암상보다 훨씬 장식적이며 화려한 점은 얕은 부조로 선각된 墓門상의 특징으로 인해 원형에 가까운 부조인 석굴암상보다는 회화인 원본을 더 쉽게 옮길 수 있었던 표현상의 용이함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墓門의 상은 천왕상뿐 아니라 악귀의 자세에서도 석굴암상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묘문의 향우 천왕이 밟고있는 惡鬼의 자세는 석굴암 증장천상의 악귀와 같이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왼쪽 팔은 팔꿈치 이하를 땅에 대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 머리를 감싼 손가락도 보이는 등 석굴암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도 23-b). 시기가 좀 내려가는 9세기의,

23-a. 향좌

23-b. 향우

圖 23-a,b. 傳 陝西省 西安出土 墓門 天王像, 唐(8세기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돈황 17굴에서 출토된 다문천화상의 악귀가 엎드린 모습 또한 위의 상들과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도 17-b). 그런데 인도의 마투라에서 출토된 난순 기둥에 있는 2세기경의 야크시니상 악귀 역시 위 상들과 유사한 자세로 엎드려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자세의 악귀형상은 인도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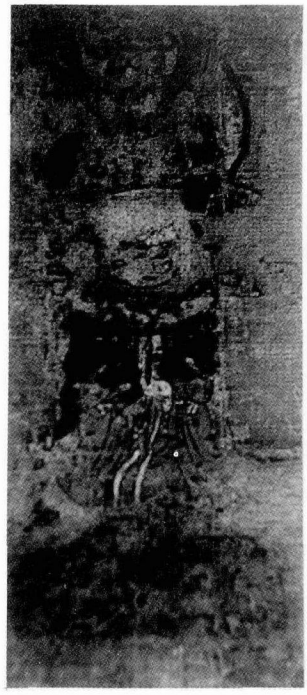
석굴암의 사천왕상과 도상이나 양식상 비교되는 8세기 중엽의 일본 사천왕상으로는 755년경 완성되었다는 東大寺 戒檀院廚子扉繪 사천왕상을 平安시대에 모사하였다는 도상과(도 24-a,b) 俱舍曼荼羅圖가 있다(도 25-a,b). 755년 제작된 화엄경주자의 비회라고 추정되고 있는 東大寺 주자 비회의 사천왕 도상은 석굴암의 지국·증장천상과 공통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62] 그러나 착용하고 있는 갑옷을 보면 견갑이 짧고 가슴밑에 腹帶와 요갑 둘레에 花形의 鶻尾가 표현되었으나 脛當은 나타나지 않고 소매자락이 길게 늘어지는 등 석굴암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754년 鑑眞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唐本에 기초하여 제작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63]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위와같은

24-a. 戒壇院廚子扉繪, 梵釋四天王圖像
8세기 원작 12세기 모사본, 奈良 東大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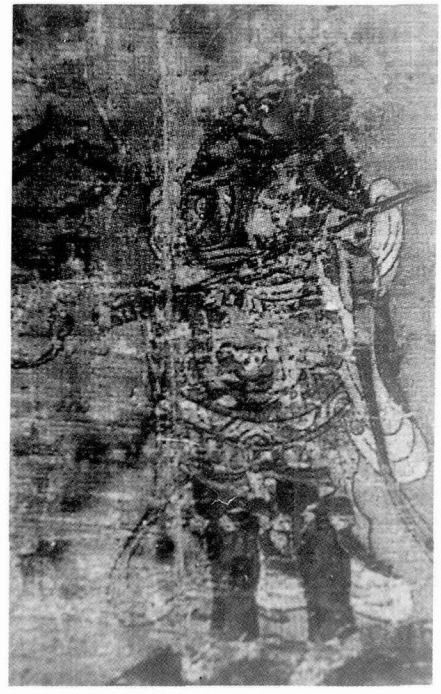
24-b. 戒壇院廚子扉繪, 梵釋四天王圖像의 持國天像

62) 龜田 攻, 「奈良時代の祖師像と俱舍宗曼陀羅圖」, 『佛教藝術』 1號(1948), p.34. 및 金理那, 위의 논문, p.14~15.

63) 松田誠一朗, 「菩薩像, 神將像意匠形式展開」, 『東大寺平城宮』日本美術全集4, 講談社(1990), p.187.



25-a. 俱舍曼陀羅圖중 향좌뒤 執弓矢天王像,
8세기 원본의 平安시대 모사도 奈良 東大寺



25-b. 俱舍曼陀羅圖중 향우앞 執劍天王像,
8세기 원본의 平安시대 모사도 奈良 東大寺

사천왕상은 감진이 중국에 머물고 있던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도상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8세기 사천왕상 가운데 이러한 형식의 갑옷을 입고 있는 예로는 중국 陝西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8세기의 상을 들 수 있으며(도 26) 제작연대가 확실한 예로는 시대가 약간 내려오긴 하나 山西省 五臺山 南禪寺大殿에 있는 唐建中 3년 782년 작 천왕상이 있다.[64] 양쪽 다리를 과장되게 벌리고 서서 눈을 부릅뜨고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천왕상은 가슴밑에까지 치켜올려 腹帶를 두르고 다리에는 脛當위에 袴를 매고 있는 점이 東大寺상과 유사하며 석굴암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7세기말에서 8세기초에 걸쳐 완비되었던 唐의 甲制는 8세기 중반이후 새로운 형식으로 유행하게 된다. 그 새로운 특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대밑에 花形의 鶻尾가 표현되고 가슴밑에 복대를 두른다는 것이다. 7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나타난 갑옷과 유사한 석굴암 사천왕상의 갑옷형식은 결국 8세기 중반이후 중국에서 유행하던 최신 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64) 『中國美術全集 雕塑編 4 隋唐雕塑』, 人民美術出版社(1988), p.59 圖六0 및 p.63 圖六三 참조.

圖 26. 天王立像, 唐(8세기), 陝西省博物館

이는 석굴암 사천왕상이 보여주는 도상상의 보수성이라 할 수 있다. 석굴암상의 지국천상과 증장천상이 검을 받쳐든 자세는 비슷한 시기의 중국이나 일본 사천왕상에서도 활발하게 채용되고 있었으나 갑옷 형식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주문을 돌린 보주가 견갑을 장식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7세기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요소이다. 이는 결국 석굴암 사천왕상은 기본적인 도상에서는 보수성을 띠면서도 세부표현에서는 새로운 형식을 보이는 新舊요소가 복합된 조형이라 할 수 있다.

廣目天像은 오른쪽 발을 왼쪽발 앞으로 교차하여 惡鬼를 밟고 서 있다(도 21-c). 얼굴은 새로 끼워넣은 것임은 분명한데 언제,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현재 알 수 없다. 정면을 향하고 있으나 교차된 다리때문에 마치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듯 보인다. 왼손은 허리부분에서 칼자루를 쥐고 칼을 신체와 일직선이 되도록 똑바로 세워 들고 있다.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펼쳐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여 구부리고 있다. 惡鬼는 왼쪽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왼손으로는 땅을 짚고 오른팔을 옆구리에 붙인 채 반쯤 몸을 일으켜 앞을 바라보고 있다.

한 손으로 검을 들고 한 손은 가슴앞에서 손바닥을 펼쳐 들고 있는 광목천상의 자세와 비교할 수 있는 시기가 올라가는 예로는 초당기의 용문석굴 빈양북동 북벽 천왕상(649-650)이나 양문웅동 남벽 천왕상(641-646)을 들 수 있다. 이 상들은 석굴암 광목천상과 같이 일자로 세워든 검이나 창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가슴앞에서 펼쳐 들고 직립해 있다. 이 상들이 취하고 있는 변화없는 직립자세는 같은 용문석굴의 봉선사상이 한 손에 지물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허리를 지긋이 누르듯이 대면서 한 다리를 악귀위에 높이 들고 서있는 굴곡있는 자세와는 매우 다르다. 또한 동물을 대좌로 하고 있는 점 역시 중국에서 唐代에 악귀좌가 사천왕상의 대좌로 정립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결국 석굴암상들은 봉선사동상보다 먼저 제작된 용문석굴의 다른 천왕상들과 유사한 도상을 보이고 있어 석굴암 사천왕도상의 보수적인 표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러한 자세의 전통은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9세기 초반의 돈황 17굴 천수관음 만다라도중 향좌의 아래쪽상이나 光化 3년(900)의 제기를 가진 안서 유림굴 25굴 전

실 동벽 천왕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7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반까지도 이러한 도상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多聞天像은 북벽 안쪽에서 본존을 향하여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올려 탑을 받들고 악귀위에 서 있다(도 21-d). 왼손은 아래로 내린 채 손가락을 위로 향해 펼치고 손목에는 천의를 걸쳤다. 악귀는 정면을 향하여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고 앉아 있다.

석굴암 사천왕상과 갑옷표현이나 자세 등에서 가장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중국의 사천왕상은 용문석굴의 천왕상들로 특히 670년대 이전에 제작된 상들이었다. 그런데 석굴암 다문천상의 갑옷이나 자세 혹은 악귀의 형상 등과 비교할 수 있는 예를 용문석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석굴암 다문천상의 자세는 비록 시대는 내려오지만 중국의 돈황17굴에서 발견된 다문천상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도 17). 돈황의 다문천상도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올려 탑을 받들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커다란 타원형이 그려진 경당이나 얇은 밑창을 댄 샌들과 탑의 형상도 비슷하다. 또한 日本 白鳳시대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法隆寺 橘夫人廚子扉繪의 다문천상 역시 보탑 형식이나 이를 받든 손의 모양, 머리를 묶어 장식하는 방법 그리고 탑을 바라보는 자세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도 27). 이러한 형식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던 다문천상의 한 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圖 27. 橘夫人廚子扉繪 多聞天像, 唐(9세기) 奈良 法隆寺

석굴암 다문천상이 들고 있는 탑은 연화좌를 갖춘 수미단부와 탑신부, 옥개부 그리고 옥개 네 모서리의 방형 돌출부로 구성된 아육왕탑이다. 아육왕탑은 남북조시대의 운강석굴이나 탑상을 장식하는 모티브로 많이 채용되었던 형식이다. 고대 우리나라 미술품에 표현된 아육왕탑은 7세기초의 백제조각의 전통을 보여주는 연기지역 비상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65] 일본의 法隆寺 金堂의 사천왕상중 多聞天이 들고 있는 보탑은 석굴암 다문천상이 들고 있는 탑과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역시 지물자체의 표현에서도 석굴암 도상의 보수적 일면을 엿볼 수 있다(도 3).

석굴암 다문천상의 악귀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팔을 얹어 천왕의 발을 받들고 반대편은 어깨로

65) 郭東錫, 「燕岐地方의 佛碑像」, 『百濟의 彫刻과 美術』, 公州大學校 博物館 · 忠淸南道(1992), p.184, 도 6-③.

받들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와 비교할 수 있는 중국의 예로는 652년의 서안 자은사 대안탑문주의 선각 신장상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보았던 8세기 초엽 墓門의 향좌 천왕상의 惡鬼 자세 역시 이와 유사하다(도 23-a). 시기가 좀더 내려오는 9세기의 돈황 17굴의 집금시한 지국천상의 악귀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볼 수 있고(도 17-a) 석굴암 다문천상 악귀 역시 중국에서 7세기 중엽이후 많이 이용되던 형식임을 알 수 있고 석굴암상은 악귀의 표현에서도 중국과 공통되는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석굴암 사천왕상은 지물을 받든 자세와 甲冑,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천왕을 받들고 있는 악귀자세 등이 중국의 성당양식이나 일본의 白鳳시대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석굴암 사천왕상이 모본으로 한 도상은 당시 통일신라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행하던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7세기후반 사천왕상과 8세기 중엽의 석굴암 사천왕상은 갑옷의 세부표현이라든가 전체적인 자세, 조각양식 등에서 매우 다르다. 우선 석굴암 사천왕상은 7세기 후반상에서 표현되었던 위협적인 표정이나 자세가 누그러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7세기상처럼 허리에 한 손을 대고 있는 상이 없으며 7세기상이 정면향이면서 공격적으로 보이는 반면 측면향이면서 수비적인 자세로 느껴진다. 갑옷형식을 비교해 보아도 7세기상의 견갑은 동물머리 장식을 하거나 어깨만을 덮는 짧은 것이었으나 석굴암상의 견갑은 거의 팔꿈치에까지 이르는 긴 것이다. 전당이나 요대 및 鶻尾 등도 볼 수 없고 7세기상의 요갑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형태였던 것과 달리 요갑보다는 裳의 표현에 더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석굴암 사천왕상들이 밟고 있는 악귀형태에서도 당시의 사실적인 조각양식을 알 수 있다. 당당하면서 힘있는 풍채는 무거운 하중에 짓눌려 버티고 있는 惡鬼 모습과 대조되어 더욱 두드러진다. 석굴암 사천왕상 가운데 증장천과 다문천이 밟고 선 惡鬼 자세는 8세기 초엽의 묘문천왕의 악귀상과 비교할 수 있다.

V. 결 론

7세기 후반이후 新羅 彫刻界는 唐이나 西域, 印度 등지에서 전래되어오는 외래요소를 첨가하여 통일신라기의 새로운 불상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은 갑옷을 입고 칼이나 창, 금강저, 塔 등의 지물을 들고 惡鬼에 서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형식의 사천왕상은 당시 중국에서도 제작되었고 이는 일본 사천왕상과도 공통되는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의 국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

四天王은 불교의 護法神으로 다양한 역할변화를 거쳐 護國神으로 정착되었다. 통일신라시대는 佛法에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염원이 강했던 시대로 사천왕 신앙이 성행하였다. 삼국시대부터 호법·호국신으로서 신앙되어오던 사천왕은 신라에 의해 통일된 후인 679년의

사천왕사지상을 시작으로 그 조영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679년의 四天王寺와 682년의 感恩寺, 8세기중엽의 石窟庵은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된 사원이었다. 본고에서는 연대추정이 가능한 이 사찰의 사천왕상을 통하여 도상의 전래라든가 양식적 특징과 변천에 주목하면서 살펴보았다.

이 상들은 제작연대를 알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라 조각계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예술성을 보유한 작품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 사천왕상에서는 알맞은 신체비례와 자연스러운 동세, 갑주와 신체의 유기적 결합, 세밀하게 묘사된 세부장식 그리고 유머러스하면서 생동감 있는 악귀의 표정과 사실적인 근육의 표현 등에서 놀라운 조각수준을 보여준다. 통일신라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중엽에 걸치는 시기는 특히 중국, 서역, 일본 등과의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였던 시대이다. 이에 주목한 결과 사천왕상에서도 역시 국제양식이라 할만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새로운 圖像과 經典에 의해 제작된 사천왕상은 갑옷과 자세, 持物의 형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독자적 형식의 완성은 토착적인 조형 능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러한 양식은 우리나라 사천왕상의 전형으로 자리잡아 이후에 제작되는 사천왕상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8세기 이후의 사천왕상은 많은 불탑과 부도에 나타나며 대부분 갑옷이라든가 지물 또는 서있는 자세 그리고 대좌형식 등에서 앞시대의 전통을 이어준다. 이러한 예로는 경주의 遠願寺址 쌍탑이나 경북 청도 雲門寺에 있는 板石에 조각된 사천왕상 그리고 경주박물관 뜰에 있는 탑신석의 사천왕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무장형 12지상에서도 이러한 사천왕상 양식과 공통되는 표현이 발견된다. 그러나 사천왕상 표현에는 일정한 도상을 따르지 않고 여러 도상 가운데 갑옷과 지물, 자세와 대좌 등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전대의 계통을 따르면서도 변형적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초당기 중국의 조각형식과 양식을 재빨리 받아들여 새로운 외래요소를 독자의 양식으로 성립시킨 통일신라 조각계의 역량은 이러한 양식이 이후 어떻게 발전되어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A Study of the Representations of the Four Heavenly Kings in the Unified Silla Dynasty

Shim, Young-shin

During the late 7th century a new style emerged in Korean Buddhist sculpture with the advent of foreign influence from diverse sources such as India, Central Asia and China. Beginning in this period, the figur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Four LOKAPĀLAS- took the shape of wearing an armor and holding weapons such as a sword, spear, thunderbolt and stupa. The similar types were also found both in China and Japan during this period, and this indicates the prevalence of these types throughout East Asia. The statu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were made based on the textual sources and iconographic types introduced from China and gradually took on distinctive forms in Silla. They also showed the perfection of a distinctive style with exquisite modelling. The Four Heavenly Kings are originally the deities who protect Buddhist religion in Buddhist cosmology, but they were later established in Silla as the guardians of the nation. Beliefs in them prevailed in Silla due to the desire to protect the country with help of Buddhist deities in this perio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basic stylistic and iconographic features of the Four Heavenly King figures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major examples include terracotta reliefs from Sach'onwang-sa(四天王寺, founded in 679), reliquary figures from Kamun-sa (感恩寺, founded in 682), and stone reliefs inside Sokkuram(石窟庵, late 8th century). They are characterized by well-proportioned body, balanced posture, delicate expressions in facial features and various details of clothing. They also exhibit that there were active international contacts between Silla, and China and Japan during the late 7th century and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Particularly they are comparable with Chinese examples from Zhangan(長安) and Loyang(洛陽) and those in Donhuang(敦煌) and Longmen(龍門) caves.